

활력향연
08

혼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서울시민·청년·여성·퀴어·1인가구·비혼을
시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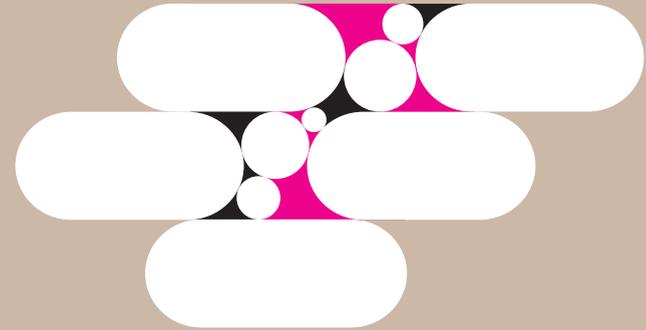
방이슬 서정 이운경 이유나
전정례 정수미 차해영

활력향연
08



08

방이슬
서정
이운경
이유나
전정례
정수미
차해영



활력향연

08

혼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연구진

방이슬

서정

이운경

이유나

전정례

정수미

차해영

활력향연

08

혼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Contents

연구 요약		7
<hr/>		
01. 혼자 한 발 딛기	1. 연구진의 한 발	26
	2. 연구의 출발	34
	3. 연구의 과정	35
<hr/>		
02. 혼자 살아가기	1.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의 개념	40
	2. 기존 연구들	41
	3. 혼자는 누구인가?	49
	4. 혼자의 삶을 보장하는 권리	51
<hr/>		
03. 혼자 돌아보기	1.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초안) 구성	60
	2. 나는 혼자 '잘' 살고 있나?(공론장)	71
	2. 여러분은 혼자 '잘' 살고 있나요?(설문조사)	119
<hr/>		
04. 혼자 정리하기	1. 현재의 한계와 이후의 확장	148
	2. 연구를 마치며	153
	3. 연구진의 정리	155
<hr/>		
부록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안) (2019)	164

정
양
관
함

08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01 연구 배경

- 한 사람은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문제를 사회적으로는 세대, 성별 등으로 일차원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 1인 가구, 반려동물 동거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동성 부부, 트랜스젠더 가족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진학 — 취업 — 결혼 — 출산 — 양육 — 부양 — 자녀 결혼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4인 가족 모델'을 정상 가족으로 보고 있다.
- 1인 생활을 임시적 삶으로 보거나, 1인 생활의 불안정성을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의 1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그렇기에 1인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02 연구 목적

- 한 사람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어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이 아닌 다양한 개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로의 관점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 1인의 생활을 불안하거나 미완인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만듦을 목표로 한다.
-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를 만듦으로써 개인이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영역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03 연구 방법

- 기존 1인 생활보장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분석
- 현상 분석 및 연구진 집단 토론
- ‘나 잘 살고 있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공론장 개최
- 1인 생활보장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04 연구 체계

연구 단계		연구 내용
1인 생활보장 현황분석	대상 현황 분석	1인 생활보장 현황 조사 및 분석
지표설계 I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지표 개발	기존 1인 생활보장 관련 자료 조사 생활보장 기본 권리 선정 문화다양성/행복지표 조사 분석 선행연구 조사 분석
지표설계 II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설계 공론장	지표의 한계 논의 및 설계안 도출 지표 조사항목 구성 및 설문 점검 당사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지표보안
지표조사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서울시민·청년·여성·귀어·1인 가구·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대상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지표별 설계안 자문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사점 도출
지표조사 결과분석	지표별 조사결과 분석	지표별 지표값 분석 및 시사점 도출

05 연구 기대효과

- ‘1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1인 생활보장’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공동체(가족, 학교, 회사, 국가 등) 내에서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 1인의 생활을 보장 관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길 바란다.

2.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의 개념 및 조사대상

01 1인 생활보장 평가 지표의 개념

- 1인 생활보장평가지표는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총 5가지 권리로 구성했다.
- 자기 삶을 돌아보며 각 권리별로 보장 받아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삶을 통합적 관점으로 보기위한 지표다.
-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의 '1인'은 '1인 가구'로만 한정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권리와 관계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02 기존 연구의 특성 및 고찰

[참고한 기존연구]

-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레인보우 유럽 무지개 지수」
-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2018, 보건사회연구)」
- 「청년 여성 2030 주거실태 조사(20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존 연구의 특성 및 고찰]

- ‘행복’, ‘다양성’, ‘차별’ 등의 추상적 개념을 지표화한 연구들로 ‘1인 생활보장’이라는 개념을 지표화하는 과정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
- 1인 가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실태, 사회경제적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관계 자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 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체성으로 호명되는 것이 아닌 1인의 삶을 조명하고, 1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모두 보장받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표를 만드는 것의 유의미성을 발견했다.

03 조사대상 주요현황

- 서울시민, 청년, 여성, 퀴어, 1인 가구,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대상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했다.
- 지역, 지정성별 및 성별정체성, 연령, 성적지향, 가구, 혼인여부 등 다차원적으로 한 개인이 갖는 정체성이 모두 보장 받는 삶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3. 2019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개발

01 2019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추진 개요

조사명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조사영역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조사방법	자료수집, 선행연구 분석, 공론장, 온라인 설문, 자문회의
조사과정	지표 초안 설계, 지표 점검 및 보완, 조사 분석

- 본 연구는 드러나지 않는 개인들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공론장과 온라인 설문을 연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계했다.
- 또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의 유의미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했기에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과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받는 설문조사가 중요했다.
- 이후에 자문회의를 통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조언을 받고,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였다.

02 2019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구성

- 본 연구는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으로 1인 생활보장의 권리를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 것이 1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 질문형 지표구성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게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질문을 던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노동권

- 본 연구에서의 노동권은 광의의 노동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산 노동에 대한 참여에 대한 권리와 자녀/가족/자기 돌봄의 모든 재생산 노동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비혼 여성이 삶을 영위하는데 임금노동 외의 돌봄 노동은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 문화권 등 다양한 권리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파악되어 협의의 노동인 생산노동과 관련되어 겪을 수 있는 차별적 상황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 노동권을 정의하였다.
- 채용, 고용(일터) 상황에서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주거권

- 본 연구에서 주거권은 주거기본법의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동일하게 정의한다. 여기에서 실제 현장에서 세밀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물리적 안전과 신체적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거주할 권리와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권을 정의하였다.
- 계약/퇴거, 거주, 이사/집수리/리모델링 상황에서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건강권

- 본 연구에서는 '건강'의 영역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범위로 정하여 건강을 유지할 권리로써 건강권을 정의하였다. 개인의 삶에서 그들의 건강한 상태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고유한 정체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탐색하거나 지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에 의해 기회가 박탈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차별 경험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 의료, 몸/운동, 정신/마음, 위행/질병, 결정권 위임 등으로 구분하여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문화권

- 현대에 들어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이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범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그들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한 문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범위를 예술, 미디어로 한정하고, 개인이 예술, 미디어 문화를 적절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개발, 발전할 수 있는 권리로써 문화권을 정의하였다.
- 시설/플랫폼, 대중미디어(국내영화, TV, 웹툰 등 포괄), 네트워크/행사로 구분하여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안전권

-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는 '안전권'의 범위에서 혼자 사는 개인, 청년 세대가 위험하다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인위적, 사회적 요소인 인재에 의한 사회적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로 안전권을 정의하였다. 혼자 사는 개인이 위험으로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 및 타인의 공격, 각종 오염과 환경훼손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함께 타인과 자신의 안전거리, 보이지 않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까지 포괄하여 정의하였다.
- 집(가족), 공공시설, 보호시설, 일상/여가, 위급상황으로 구분하여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4. 2019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공론장 및 설문조사

01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공론장

['나 잘 살고 있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공론장]

참여대상	서울시민, 청년, 여성, 귀어, 1인 가구,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대상, 36명 참여
참여일시	2019년 7월 20일(토) 13:00~16:00
참여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
논의방법	개별 설문문항 응답 테이블토론 설문문항 유의미성 논의 및 설문문항 보완

- 1인 생활보장 기본권리(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유의미성 확인
 -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을 개인의 삶의 기본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합의하여 유의미성 확인했다.
 - 참여자들이 권리별 질문에 답하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질문 혹은 생각을 전환하게 하는 질문임을 이야기 했다.

- 참여자 토론을 통해 권리 내 혹은 권리 간에 세부항목 이동 및 추가 설계 진행
 - 세부항목이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중 어느 권리에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토론했다.
 - 설문에 관한 생각과 자기 삶의 경험을 나누며 세부항목을 추가로 설계했다.

02 2019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설문조사

[1인 생활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민, 청년, 여성, 퀴어, 1인 가구,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대상, 86명 참여
조사항목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전체 151항목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9년 8월 6일(화)~8월 18일(일), 12일 진행

-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의 유의미성 확인
 - 설문 응답자 중의 대다수가 설문에 응답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남겼다.
 - 일상 속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의 필요를 이야기했다.

· 가족/가구 중심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 설문 응답자 중의 대다수가 1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을 안전한 1인 가구의 주거권 보장과 함께 생활동반자제도로 이야기 했다.
- 또한 4인 가족 중심의 기존의 법제도를 1인 기반 법제도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 하며, 국가 차원으로 1인 생활보장을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기를 원했다.

5. 종합분석 및 향후과제

01 종합분석 및 시사점

- ‘1인 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1인 생활을 불안하거나 미완인 상태로 여기거나 보지 않고, 개인이 선택한 삶의 한 형태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1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관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개인이 자기 돌봄을 할 수 있고, 개인이 희생하지 않아도 공동체(가족, 일터 등)가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4인 가족 중심의 정책체계를 1인 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02 개선방향 및 향후과제

·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연구 후속 진행

- 기존 1인 생활보장 기본 권리인 5가지 권리(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와 함께 교육권을 추가로 설계하려고 한다.
- 기존 연구자를 포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견고하게 지표를 구축하고자 한다.

· 1인 생활보장 공론장 지속적인 개최

- 1인 생활보장 공론장을 권리별로 깊이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공론장을 개최하여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삶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 1인 생활보장 공론장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며 각 권리별로 보장 받아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삶을 통합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1인 생활보장 정책의제 발굴 및 제안

- 1인 생활보장을 위한 각 권리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한다.
- 1인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부터 조례제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정
리
요
요

08

01. 혼자 한 말 딛기

1. 연구진의 한 발

방이슬

— 나는 비혼, 쿼어, 여성(부분적), 청년이고, 1인으로 존중과 보호를 원하는 시민이기도 하다. 이런 시민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나와 같은 사람들의 경험이 어떻게 더 힘있게 가시화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게 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1인 가구'의 형태로 생활한 기간은 정작 길지 않다. 내 생활의 형태는 청소년기 보호시설부터, 서울로 이주한 이후 하숙, 고시원, 주거공동체, 임시숙소들, 친구의 집 한 칸을 떠도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혼자만의 방'이었는데 뜻대로 환경이 도와주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스스로 언제나 1인이었고, 한 사람으로 존중 받기를 염원했다. 원가족의 보호를 받는 시간보다는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었고, 다른 많은 또래들처럼, 아버지나 남편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 나는 쿼어이고, 그래서 연인과 가족을 만드는 것만이 단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믿으며 성장하지도 않았다. 현재 나의 파트너십은 나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더라도 이성애범틀혼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 없고,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수혜에서 벗어나 있다. 언제나 다양한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그 함께 사는 길은 여러 갈래이기를 바란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고, 독립적이나 고립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쿼어, 여성, 비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연구가 나와 비슷한, 혹은 더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작은 끈이 됐으면 했다.

서정

나는 비혼주의자다. 퀴어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공동체를 꿈꾸는 공동체주의자이기도 하다. 언니네트워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정체성을 만들어 준 곳이다. 나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처음으로 만났고, 배웠다. 사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바뀌고, 또 내가 그들을 크고 작게 변화시키는 작은 정치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

언니네트워크 총회에서 퀴어여성청년 프로젝트를 접하고서는, 내가 작은 정치에 만족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방식의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들을 정책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니 너무 매력적이었다. 퀴어, 여성, 비혼, 청년의 이슈들을 함께 탐구해보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공적 지원들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의 정체성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내게는 주어지지 않을 때 느꼈던 속상한 마음을 이 연구를 통해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막연했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를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과정의 끝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획득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 연구를 시작하는 나를 꽤 희망적으로 고무했다. 물론 아주 당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길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주리라고 관대하게 전망하면서 말이다.

이문경

—— 처음 언니네트워크의 감자모임을 통해 정상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접하였다. 당시 1인 가구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나 홀로 걱정하던 사소한 고민들이 많은 1인, 즉 개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임을 깨닫고 본 연구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다.

—— 혼자만의 삶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걱정이 된 것은 물리적 안전이었다.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이유도, 결과도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관문 열림 센서와 각종 호신 도구를 구매했다. 아니,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만의 삶을 꾸리기 시작하며 제일 먼저 현관에 아버지의 신발을 하나 가져다 놓는 등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현관 안팎 곳곳에 남겨 두었다.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밤늦은 시간 집으로 들어가기 전 현관 앞 계단을 살피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자동으로 긴장한다.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내가 ‘가져야 마땅한 권리’에 대해 계속 되어 연구되고, 그 권리를 보장할 방법이 꾸준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많은 개인들은 각자의 많은 공간과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나와 같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불안에 대한 연구의 첫발을 함께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유나

—— 매우 전형적인 4인 가구의 가구원 1로서 주생계부양자의 피부 양자로 나름 독립적인 생활공간과 풍족한 문화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내가 불안에 떨었던 것은 언제 내 바이섹슈얼 정체성이 문제가 되어 집에서 쫓겨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가야 할 때, 당장의 생활과 머물 곳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던 시절 집은 집이되 집이 아니었다. 교육도 일도 ‘아내’, ‘어머니’로서의 과업을 수행하기 적절한 것으로 제시되고 여자 아이가 자라면 결혼을 해서 원가족을 벗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길로 집을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상상하지 않는 가족 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한다.

—— ‘운이 좋게도’ 쫓겨나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머물 곳과 생활을 의존하게 될 때 그 의존성을 빌미로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매우 호되게 깨닫는 경험을 했다.

——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정체성’을 삭제하지 않은 혼자의 삶을 상징한 권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4인 가구 안에서도 섬처럼 존재하는 1인의 고립과 불안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거권이 단순히 공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실질적인 안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안전이 있어야 문화도 누릴 수 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인 통제가 없는 공간이 있어야 귀여운 문화도 누리고 살 것이 아닌가.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주어지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해서 곧 결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년을 상상하고 공간을 짓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 안에서 결합하기도 하고 관계가 해소되기도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간이 평등하게 주어질 때, 의존성을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기고 부당한 관계를 깨뜨릴 힘이 생긴다. 과거의 나를 현재로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연구에 함께 했다.

전정례

주거 쪽에서 일하는 터라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대주택 공고문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다. 임대주택 공고문은 한마디로 어렵다. 그 중에 신청자격 부분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원룸, 2인 가구는 투룸, 3인 이상 가구는 쓰리룸’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세대는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가구는 취사와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란다. 이 기준으로 보면 부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도망쳐 나오려는 청년은 세대주인 부모에게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자립생활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끈끈한 돌봄 관계를 형성한 3인 가구는 방이 세 개인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혈연·비혼인 관계인 그들은 각각 원룸에 사는 1인 가구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원가족과 같은 집에 살아 1인 가구 정책에서는 배제되어 있지만, 원가족과 상호신뢰와 돌봄 관계는 없는 실질적인 1인 생활자들이 무수히 많지 않나? 각각이 독립세대주로 통계에 잡히지만, 한 집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다인가구도 많지 않을까? 주석의 주석이 끝도 없이 달릴수록 두꺼워지는 임대주택 공고문은 혼인과 혈연으로만 세대와 가구가 구성된다는 낡은 틀에 갇혀 1인 생활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지 못해 생긴 결과가 아닐까? 이 예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수라는 걸 드러내고자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수미

————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 모인 우리 사회에는 때로는 특정한 정체성으로 ‘개인’을 명명하곤 한다. 예를 들면 유색인종이며 장애를 가진 결혼이주 여성 A씨는 다양한 그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특정되는 사회조사에서는 몇가지만의 정체성으로 그의 존재와 삶의 형태를 드러내곤 한다. 우리는 1인 가구×여성×청년×비혼×퀴어×N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주목하는 첫 걸음을 시작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 사회가 말하는 ‘정상성’을 벗어난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가 과연 혼자만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실존하는 이들의 삶을 주목하고 싶었다. 이들의 삶에 가닿은 노동, 건강, 주거, 안전, 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 이들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표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차해영

———— 사회적으로 다양한 공론장이 열리면서 청년으로 호명되거나 여성으로 호명되거나 1인 가구로 호명되거나 비혼으로 호명되는 일들 많았다. ‘나’라는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편적인 부분만을 드러내길 바라는 듯 하는 느낌을 받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살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모두 포괄하여 ‘나’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다.

———— 인생의 3분의 1을 1인 가구로 살고 있다. 이 전에 핵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모조카가족, 가정위탁 등 다양한 가족을 경험해보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것 같지만, 이후의 삶을 혼자 살든 같이 살든 서로가 1인의 안전한 영역을 지키며 각자의 삶을 보장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의 공동체적 관계를 상상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단순히 개개인의 노력으로 서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다양한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체계를 바꿔나가고 싶다.

———— 이런 생각과 함께 한 사람이 어디서는 소수자이고, 어디서는 다수자인 상태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소수성과 다수성이 모두 존재함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을 알아듣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1인 생활보장’에 대해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출발

본 연구는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보지 않고, 세대, 성별 등으로 일차원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현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하였다.

진학 - 취업 - 결혼 - 출산 - 양육 - 부양 - 자녀 결혼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4인 가족 모델'을 정상 가족으로 두고 정책설계를 하고 있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1인 가구, 반려동물 동거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동성부부, 트랜스젠더 가족,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인 현존하고 있지만 그 삶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1인 생활을, 1인 가구만으로 사고하고 정상 가족으로 가는 이행과정의 임시적 삶으로 보거나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있기에 온전한 1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구성하고 있는 가족과 가구의 형태와 관련 없이 자기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를 지향하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혼자', 즉 1인 생활자(개인)를 정의하고자 한다.

1인의 삶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로, 2인 이상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까지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잘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던 '개인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드러내고자 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한다.

3. 연구의 과정

01 기존 1인 생활보장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분석

- 귀여청 연구자들은 기존 행정 자료, 연구 자료 등을 찾고 세미나를 진행하여 연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 또, 1인/ 생활/ 보장/ 평가/ 지표 와 함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각 권리별 정의를 내리기 위해 법률적 정의, 사전적 정의 등을 찾아보고 본 연구에 맞게 정의하였다.

02 현상 분석 및 연구진 집단 토론

- 귀여청 연구자들은 각 권리별로 상황, 장소, 활동 등 영역을 구분하여 차별적 점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항목을 설계하였다.
- 연구자 1명씩 담당하는 권리를 정하여 세부항목 점검 및 추가 항목 설계를 진행하고, 귀여청 연구진 집단 토론을 통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가안)'를 설계하였다.

03 '나 잘 살고 있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공론장 개최

-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민, 청년, 여성, 귀어, 1인 가구,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36명의 참여자와 함께 '나 잘 살고 있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공론장을 진행했다.
-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각 권리 별 테이블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이 관심권리 테이블에 앉아 권리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전체적으로 각 권리별 테이블의 공유시간을 갖고,
- 참여자 토론을 통해 권리 내 혹은 권리 간에 세부항목 이동 및 추가 설계를 진행했다. 그와 함께 권리별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삶의 경험을 나누며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의 유의미성을 확인했다.

04 1인 생활보장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2019년 8월 6일 화요일부터 8월 18일 일요일까지 1인 생활보장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기본정보,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객관식 항목과 함께 '주거하면 좋을 질문', '당사자 권리 침해 사례', '1인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적 우선방안'에 관한 주관식 항목을 포함해 총 151개의 조사항목을 설계하였다.

- 서울시민, 청년, 여성, 쿼어, 1인 가구,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86명의 참여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 설문 응답자 중의 대다수가 설문에 응답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일상 속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의 필요를 이야기 했다.
- 이와 함께 1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의 우선적 지원으로 안전한 1인 가구의 주거권 보장과 함께 생활동반자제도를 이야기 하며, 4인 가족 중심의 기존의 법제도를 1인 기반 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05 전문가 자문회의

- ‘나 잘 살고 있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공론장을 마치고, 1인 생활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시점에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변호사)와 우지영(퀴어여성게임즈 기획단원)과 함께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 공론장을 통해 참여자들과 수정·보완한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와 설문조사 설계항목을 보고 연구 자문을 받았다.
- 자문위원들은 조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답할 수 있는 설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성별, 연령, 학력, 직군, 소득수준, 주거지역 등을 추가 설계하면 응답자를 분석하는데 용이하다고 말했다.

- 퀴어 차별 실태조사 같은 느낌이 있다며, 응답자 기본정보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등을 묻고, 권리별 각 세부설문항목에는 '성별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으로~' 또는 '비혼지향으로~' 같은 경우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가 던지는 질문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을 후속활동으로 제안했다.

02. 혼자 살아가기

1.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의 개념

-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의 '1인'은 '1인 가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가족과 가구의 형태와 관련 없이 자기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를 지향하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 1인의 생활보장은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 것으로 보아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 문화권으로 권리를 기본권리를 구성하였다.
-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는 질문형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개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며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질문을 던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개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2. 기존 연구들

01 기존연구 내용 및 특성

1)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는 지역 주민의 체감형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역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객관적인 행복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지역 공동 지표와 특성 지표로 구분하여 지표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간 특성을 비교하여 지역 개발 계획 수립에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지표는 마을 자원(15개), 공동체역량(36개), 삶의 질(41개)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마을 자원은 지리적 특성, 위치 및 접근성, 어메니티 자원, 자연경관,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의 지역 내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인 자원 정도 외에 주민들이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마을 자원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였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 요소인 주민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역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반 및 인적자원을 반영하였다. 삶의 질 영역은 정량적 파

악이 불가능한 부분 중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부분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외에 건강, 안전에 관한 부분을 고려하였다.

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는 한국에서 문화예술을 활동하는데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집단(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독립예술문화, 대안예술문화)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화다양성 지표는 정책지표(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여건지표(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자원인력여건), 활동지표(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인식개표(친밀도, 수용도, 필요도, 포용도, 평등도)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자 집단 간 정책적 환경의 격차를 드러내고,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관념적으로는 긍정적·우호적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었을 때는 부정적·배타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의 범사회적 확산을 도모했다.

3) 「레인보우 유럽 무지개 지수」

「레인보우 유럽 무지개 지수」는 LGBTI 평등 법적 지표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및 인터섹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계 검토를 바탕으로 49개의 유럽 국가를 0%(인권 침해, 차별)와 100%(인권 존중, 완전한 평등) 사이의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평등과 차별금지를 6가지 범주(평등과 차별 금지, 가족, 증오 범죄 및 증오 발언, 법적 성인지 및 신체 무결성, 시민 사회 공간, 보호 시설)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1) '평등과 차별 금지' 범주에서는 헌법 상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고용, 상품 및 서비스, 교육, 건강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과 평등 단체 및 평등 행동을 다루고 있다.
- 2) '가족' 범주에서는 결혼에 대한 헌법적 정의와 입양, 의학적 보조 인공 수정 및 개인의 불임 치료를 다루고 있다.
- 3) '증오 범죄 및 증오 발언' 범주에서는 성적 취향 및 성정체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적개심, 증오심을 금지하는 법안 및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 4) '법적 성인지 및 신체 무결성' 범주에서는 법적 성인지를 위한 입법, 행정 절차, 개명, 의료 개입 등을 다루고 있다.
- 5) '시민 사회 공간' 범주에서는 LGBTI의 공공 행사 및 집회, 기관 및 출판물의 기능, 인권 변호인, 자금 조달 등을 다루고 있다.
- 6) 마지막으로 '보호 시설' 범주에서는 국가 행위자에 의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프레임 워크에 기초한 행동을 다루고 있다.

4)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2018, 보건사회연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여 청년들이 타인과 공유하는 시간, 개인 여가 시간, 임금 노동 시간의 실태와 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실업과 주거를 넘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더 나아가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되던 청년 정책의 범위 또한 고용, 노동 분야에서 확대되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5) 「청년 여성 2030 주거실태 조사(20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서울시 1인 가구 중 청년 여성들의 고용불안정 및 주거, 안전 문제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여 불안정주거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고용불안정 및 주거, 안전 문제와 관련한 청년 여성의 실제사례를 담아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 및 상황을 연구에 적용코자 하였다.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룸셰어링 사업 및 여성 1인 가구 전용 주택공급, 1인 가구 임대주택 입주 및 대상조건의 완화를 제시하였고, 안전 지원 방안으로는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여성안심택배 확대,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 및 기능 확대를 제시하였다. 일자리 지원방안으로는 맞춤형 민간일자리 연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대상자 확대를 제시하였다.

02 기존 연구의 고찰

1)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의 경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체감형 행복도 지표를 구성하여 지역별 행복도를 측정/비교한 연구다. 개인이 권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행복 등을 지표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역별 행복도의 평균치를 측정 및 비교에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삶의 질’ 영역을 통하여 정량적 파악이 불가능한 개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 공공시설로의 접근성, 육체활동 빈번도, 삶 만족도, 스트레스 빈번도, 독거 노인 대상 친지 방문 정도, 주야간 집에서의 안전 등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비혼, 1인 가구 등 특정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 안에서 또다시 교차성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였다.

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는 한국에서 문화예술을 활동하는데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집단을 선정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소수자 지원 정책의 범위 및 영역을 확대 시키고, 소수자 집단 간의 지원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또,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자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별로 행정자료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필요성과 국민인식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함을 제안한 점은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분석하는데 참고하였다.

하지만 소수자 집단, 다양한 소외계층을 특정화 시켜서 조사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1인 생활보장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레인보우 유럽 무지개 지수」

「레인보우 유럽 무지개 지수」는 개인, 즉 다양한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1인이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여 각 유럽 국가에서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적 정도에 대해 분석한 지표다. 특정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대상의 기초 자료를 수립하는데 참고하였다.

하지만 레인보우 유럽 무지개 지수의 연구 목적 상 특정 성체성, 성별 정체성을 가진 연구 대상자들만을 포함하고 있어 커밍아웃하지 않고(혹은 해당 사항이 없는) 1인 가구, 비혼, 여성으로 살아가는 개인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2018, 보건사회연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는 연구의 대상을 청년으로 하여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일자리 중심에서 삶을 질을 전반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 하였다는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잡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의도를 확고히 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듯 사회적 관계를 '시간량'으로 측정하여 그것이 과연 개인에게 유의미한 수치로써 작용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자들은 의문을 가졌다. 특히 '청년'의 본질을 각 개인이 아닌 '청년'이라는 그룹으로 묶어 그 특성을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5) 「청년 여성 2030 주거실태 조사(20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는 1인 가구의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공통적 특성과 실태, 개인의 사례를 종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방향성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용불안정 및 주거, 안전 문제와 직면해 있는 청년 여성들의 권리 확보 현황을 조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론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불안을 파악하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다양한 권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3. 혼자는 누구인가

-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6년여 동안 MBC에서 <나혼자산다>라는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혼라이프, 혼밥, 혼술, 혼영, 나홀로라운징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된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두고,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국가공동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반영하거나 정책을 수립하지는 못하기에 개인의 삶을 사회의 모든 부분에 우선순위로 두고 사회구조를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지금까지는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방식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리고 가족의 일원에게 또는 일원 간에 발생한 문제는 오롯이 가족이 책임졌고, 가족이 책임질 수 없다면 개인이 책임져왔다.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제3조 1)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단위'(제3조 2)로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에서도 읽히듯이 '혈연' 또는 '법률' 혼/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닐 경우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 속한다. 그렇기에 현재의 정책은 부모/

자식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과 부양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다수다.

- 1인 가구, 반려동물 동거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동성부부, 트랜스젠더 가족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존재하지만 이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으로 치부되고, '건강 가정'으로 가기 전의 임시 상태 혹은 건강 가정으로 되돌려야 하는 불안정 상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1인 가구는 이행과정으로 보기에 임시적 주거정책과 그에 따른 안전정책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1인 가구로 살아가기에 안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 본 연구는 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1인을, 1인 가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구성하고 있는 가족과 가구의 형태와 관련 없이 자기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타인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유대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를 지향하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혼자', 즉 1인 생활자(개인)로 정의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지금 1인의 삶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 한 채로 2인 이상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에 문제제기 하려고 한다. 지금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의 삶을 드러내며, 어떠한 정체성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4. 혼자만의 삶을 보장하는 권리

본 연구는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으로 1인 생활보장의 권리를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 것이 1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01 노동권

- 노동법에서는 노동권(勞動權)을 “노동을 할 능력을 갖춘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욕을 가진 사람이 사기업 등에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최소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고자 하고 있다.
- 하지만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 또는 근로의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 즉 생산 노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임금을 받는 생산노동 외에도 사회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가사노동, 돌봄 노동 등의 재생산노동 또한 주목받고 있고, 재생산노동의 ‘가치’를 넘어서 ‘가격’에 대해서도 꾸준한 지적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노동권은 광의의 노동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생산 노동에 대한 참여에 대한 권리와 자녀/가족/자기 돌봄의 모든 재생산 노동을 포괄하여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비혼 여성으로써 통상 육아 등의 돌봄 노동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임금을 위한 근로조건 외에 자기 돌봄이라는 돌봄 노동이 동반된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설문문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혼 여성이 삶을 영위하는데 임금노동 외의 자기 돌봄 노동은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 문화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 파악하고, 협의의 노동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산 노동에 대한 참여, 그 노동을 통해 겪을 수 있는 차별적 상황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노동권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02 주거권

- 주거권은 유엔 사회권 규약 11조('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의 '의식주에 관한 권리'와 세계주거회의^{HABITAT}에서 채택된 '벤쿠버 선언'의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국내법에서도 주거기본법에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기존의 국제, 국내의 법과 제도에서 말하는 주거는 물리적 거처인 주택과 사회적 의미의 주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주거권은 물리적 안전과 신체적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거주할 권리라는 1차적 측면과 사회·

문화·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2차적 측면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 가능 할 정도라고 여길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인가,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한가, 강제퇴거 당하지 않고 점유 안정을 누리고 있는가, 주거비는 적절한가, 사회관계망을 향유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개인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 주거를 거주의 개념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이 개정되어 모든 사람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의 특수성, 소수자성, 고유의 사회관계망 등의 맥락을 간과한 채 단일한 생애주기를 상징하는 주택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신혼부부에게 집중된 주택공급과 전통적 정상 가족의 내 집 마련을 장려하는 분양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본 연구에서는 주거권이 실재 현장에서 세밀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특히 최근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실태에 집중하였으며 청년 중에서도 여성, 쿼어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기존 청년 주거권 논의에서는 주로 주거 면적이나 주거비용 등 주거권의 1차적 측면에 집중된 연구와 제도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주거권의 2차적 측면까지 살펴보기 위해 질문을 다양화 하였다.
- 여성, 쿼어 등 개인의 특수성, 소수자성 때문에 정상생애주기가 포섭하지 못하는 이들이 물리적 안전, 점유안정이나 주거비용 측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않은가, 이들의 사회관계망이 주거라는 물리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제한 당하는가, 혹은 그 제약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에게 유의미한 관계망을 유지해 나가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03 건강권

-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권을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까지 넓은 개념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WHO에서 제시하는 건강의 정의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이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질병의 유무를 넘어선 보다 넓은 관점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WHO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인종·종교·정치·경제·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강의 범위는 신체적인 부분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 하지만 이렇게 법률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인의 삶에서 건강권이 훼손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받거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공격당하기도 한다. 특히나 소수자의 경우, 그들의 정체성을 이유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상당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의 영역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범위로 정하고, 개인이 건강을 유지할 권리로서 건강권을 정의하였다. 개인의 삶에서 그들의 건강한 상태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탐색하거나 지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에 의해 기회가 박탈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차별 경험을 포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 또한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상태와 증진에는 의료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주거환경, 유전 등 더욱 다양한 개인의 상황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수만큼이나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 상황 범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면면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체력 증진, 의료기관 이용, 정신 건강과 관련한 인식 및 개선 방법에 대한 접근성,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의사결정권 위임 등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상황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04 문화권

- 세계인권선언의 제2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정의한다.
- 문화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언어, 풍속, 건축, 의상, 음식, 연극, 음악 등 인류의 발전에 따라 그 모습을 다양하게 발전해가며 존재해 왔다. 또한 현대에 들어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이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범위까지 확장되고 있다.
-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그들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한 문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하였다.
- 문화의 범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범위를 예술, 미디어로 한정하고, 개인이 예술, 미디어 문화를 적절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개발, 발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문화권을 정의하였다.

05 안전권

- 국립국어원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안전^{安全}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에는 타인으로부터의 위험은 물론이고, 자연재해 및 사회적 위험도 포함된다. 위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안전이란 사용영역에 따라 내용이 다른데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을 비롯하여 여러 헌법조문에 안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 과거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천재에 따른 자연현상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경우에는 항공 해상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나 붕괴, 침몰사고 등 인재(인위적, 사회적 요소)에 의한 사회적 재난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연적 위험(재난)과 사회적 위험(재난)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나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다.
- 국가는 이러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생명과 신체의 보호, 원자력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항공과 교통소음으로부터의 보호, 각종 오염과 환경훼손으로부터의 보호 등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제3자적인 법입 침해로부터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안전권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다수 결정에서도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이렇듯 시대에 따라 ‘안전권’의 정의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개인마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안전권을 정의하는 개념은 다르다. 우리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개인, 청년 세대가 위험하다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인위적, 사회적 요소인 인재에 의한 사회적 재난에 초점을 두고, 혼자 사는 개인의 안전권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
리
요
요

08

03. 혼자 돌아보기

1.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초안) 구성

- 1인 생활보장평가지표는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총 5가지 권리로 구성했다.
- 질문형 지표구성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고 각 권리별로 보장 받아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삶을 통합적 관점으로 보기 위한 지표다.
- 노동권은 채용, 고용(일터) 상황에서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 주거권은 계약/퇴거, 거주, 이사/집수리/리모델링 상황에서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 건강권은 의료, 몸/운동, 정신/마음, 위생/질병, 결정권 위임 등으로 구분하여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 문화권은 시설/플랫폼, 대중미디어(한국영화, TV, 웹툰 등 포괄), 네트워크/행사로 구분하여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 안전권은 집(가족), 공공장소, 보소시설, 일상/여가, 위급상황으로 구분하여 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세부 문항을 설계하였다.

|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 채용

- 이력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성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적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 면접 시 연애, 결혼, 출산, 육아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아본 적 있는가?
 - 면접 시 특정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평가로 인해 취업 또는 계약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 있는가?
-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고용(일터)

- 자신의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을 커밍아웃 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 자신의 비혼지향을 이야기 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성별정체성을 다르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를 다르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가?
- 비혼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하는 적이 있는가?
- 비혼지향에 따라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하는 적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급여, 승진, 근로조건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가?
- 혼인여부에 따라 급여, 승진, 근로조건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가?
- 비혼인 비혈연 관계에 대한 가족수당, 경조휴가, 돌봄 휴가가 있는가?
- 생리, 트랜지션 등으로 인한 호르몬 치료/수술, HIV감염, 개인적인 질병, 장애 특성에 따른 상태급변 등의 사유로 휴가를 쓸 수 있는가?
- 이유를 말하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가?
-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가?
- 특정 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규정이 있는가?
- 외모/복장에 대해 특정 성별 고정관념적인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일터에 맞춰 생리주기, 임신/출산, 임신중단 등을 조절하기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
-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가?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계약/퇴거

- 주거 계약 시 1인 가구라는 이유로 차별적 질문, 간섭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는가?
- 주거 계약 시 혈연/혼인관계가 아닌 생활동반자에 대한 차별적 질문, 간섭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는가?
- 주거 계약 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비혼지향 등이 알려질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한 적이 있는가?
- 주거 계약 시 청년 여성 1인 가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인을 대동한 적이 있는가?
- 파트너/생활동반자와 함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관계 정리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해소 시, 임대차 계약 관계 정리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월세 및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더 안전한 집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퇴거요구를 받은 적 있는가?
- 가구형태로 인해 퇴거요구를 받은 적 있는가?(반려동물 포함)

I 거주

-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 또는 정체성에 따른 퇴거 압박 또는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는가?
-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 또는 집에 방문하는 사람과 관계에 대해 이웃이 물어보는 것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 집 안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걱정이 될 때가 있는가?
- 집에서 혼자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택배를 받는 것이 걱정될 때가 있는가?
- 집 안에서 불법촬영장비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혼자 사는 것을 들켜지 않기 위해 위장해 본 적이 있는가?
- 방법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는가?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이사/집수리/리모델링

- 집수리 또는 리모델링 시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하여 의견이 무시된 적 있는가?
 - 이사 시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하여 의견이 무시된 적 있는가?
 - 집수리가 필요할 시, 성별정체성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요구한 것이 무시된 적 있는가?
 - 집주인이 사전연락 및 동의 없이 집에 무단침입 한 적이 있는가?
-

|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의료

-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삽입/섹스, '이성교제' 결혼, 출산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
- 의료인의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탐수술, 산부인과 진료, 불임수술, 호르몬치료 등)
- 국민건강보험에 비혼인/비혈연 관계의 생활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적 있는가?
-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지원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 있는가?
- 나의 법적가족이 일상적으로 나를 돌보는 사람과 일치하는가?
- 내가 파트너 혹은 생활동반자의 법적가족이 아니어서 간병이나 면회를 제한 받은 적이 있는가?
- 파트너 혹은 생활동반자가 나의 법적가족이 아니어서 간병이나 면회를 제한 받은 적이 있는가?

| 몸/운동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운동종목의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성차별적인 피드백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 다이어트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가?
- 꾸밈노동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가?
- 다이어트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다이어트 약 부작용, 식이장애 등)
- 꾸밈노동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하이힐로 인한 발 부상, 화장으로 인한 비립종 등)
- 옷 가게에서 혼인여부에 따라 옷을 추천 받은 경험이 있는가?
- 옷 가게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입고 싶은 옷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 공용 샤워실/탈의실 사용이 어려워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 임신/출산을 이유로 흡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 있는가?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정신/마음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지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지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타인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이 드러났을 때, 미움을 받거나 단계를 단절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가?

I 위생/질병

- 공용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느끼는가?
- 공용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
- 공용화장실에서 세척이나 세탁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 생리대나 생리컵 사용을 포기 한 적이 있는가?

I 식생활

- 식당 이용 또는 배달음식 주문 시, 먹고 싶은 음식을 2인 이상부터 시킬 수 있어서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 식당 또는 외부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타인이 괴롭히거나 위협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
 - 식당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의 음식이 다르게 나오는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동일 가격의 소포장, 대표장 식재료 중에서 보관 및 음식물 쓰레기 걱정으로 소포장 식재료를 선택한 경험이 있는가?
 - 특정 성별정체성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추천 받은 경험이 있는가?
-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결정권 위임

- 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의식불명 등) 의료결정권을 위임하고 싶은 사람이 법적 가족인가?
 -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파트너/생활동반자가 나에게 대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파트너/생활동반자가 나에게 대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까봐 염려한 적 있는가?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가?
 - 나의 장례 또는 유품 정리 등이 나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봐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사망 시 나의 시신을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사람이 인도받지 못할까봐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시설/플랫폼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요구하여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커플 이벤트 참여에 제한을 당한 적이 있는가?
- 공공도서관에 여성/비혼/퀴어 관련 도서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경험이 있는가?
- 살고 있는 동네에 여성/비혼/퀴어 관련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서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문화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가?

I 대중미디어(국내영화, TV 등)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문화콘텐츠가 있는가?
- 비혼지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문화콘텐츠가 있는가?
- 중심인물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인물이 존재하는가?
- 중심인물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가?
- 자신의 정체성이 희화화된 경험이 있는가?
-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가 다수라고 생각하는가?
-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의 소비를 중단한 적이 있는가?

I 네트워크/행사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 비혼지향 등을 밝히고 활동하는 취향공동체가 있는가?
- 취향공동체에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을 숨긴 경험이 있는가?
- 취향공동체에 비혼지향을 숨긴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의 문화적 관심요소에 대해 조롱 받은 경험이 있는가?
-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동호회, 행사에 참여하기 곤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퀴어 행사에 참가함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한 적이 있는가?
- 퀴어 행사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집(가족)

- 법적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공공장소

- 밤에 거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실제 혹은 타인이 인지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시선, 질문 포함)
- 실제 혹은 타인이 인지한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시선, 질문 포함)
- 택시 이용 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대중교통 이용 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파트너와 애정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 파트너와 애정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간섭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호신)장비 등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 자기방어훈련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가?
- 서울 '여성안심 홈' 5종 키트 지원 등 국가 정책의 수혜 경험이 있는가?
- 서울 '여성안심 홈' 5종 키트 지원 등의 국가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보호시설

-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해서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가?
- 입소 및 이용을 위해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을 숨긴 적이 있는가?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일상/여가

- 여행지에서 불법촬영 장비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숙박시설 이용 시 파트너와 관계에 대한 차별적 질문, 대우를 받은 적 있는가?
 - 혐오범죄 뉴스를 보고 불안감, 공포를 느낀 적이 있는가?
 - 불안감,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아 뉴스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적이 있는가?
-

I 위급상황

- 위급상황에서 법적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끼는가?
 - 위급상황에서 급히 찾아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친구가 있는가?
 - 재난 재해 시 혈연/혼인관계가 아니어서 파트너/생활동반자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2. 나는 혼자 '잘' 살고 있나?(공론장)



노동 주거
문화 안전
건강 보장 받을
권리



연결의
모여서 만들자: 1인생활보장지표
공론장

7월 20일(토) 오후 1시 - 3시 30분 /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최: 후원회, 지원: 서울시NPO지원센터, 발의:정현, 프론트북스

01 공론장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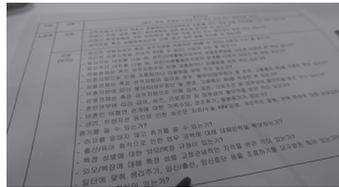
['나 잘 살고 있어?'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공론장]

참여대상	서울시민, 청년, 여성, 퀴어, 1인 가구,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대상, 36명 참여
참여일시	2019년 7월 20일(토) 13:00~16:00
참여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
논의방법	개별 설문문항 응답 테이블토론 설문문항 유의미성 논의 및 설문문항 보완

02 공론장 진행(안)

시간	구분	내용
13:00~13:20(20')	여는 자리	- 취지소개, 활동소개 등
13:20~14:30(70')	권리별 테이블토크	- 자기소개/서로소개 - 공론장 약속 함께 살펴보기 - 권리별 지표 안내/고민지점 나누기 - 설문문항 응답하기(개인) - 설문문항 유의미성 논의하기 - 설문문항 수정/보완/추가하기
14:30~15:10(40')	전체 테이블토크	- 권리별 테이블 논의를 전체 공유하기 - 설문조사 기본항목 수정 보완 논의
15:10~15:30(20')	닫는 자리	- 연구계획 - 공론장 평가(링크 접속 시간) - 사진촬영

03 공론장 현장 사진



04 공론장 논의 결과 - 권리별 설문항목 수정 보완 사항

노동권

노동권과 관련한 지표 질문(안)은 크게 '채용'과 '고용' 각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채용'섹션 4문항, '고용'섹션 18문항으로 총 22문항을 공론장에서 제시하였고,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공론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례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 단계를 거쳐 '채용'섹션 5문항, '고용'섹션 18문항으로 총 23문항을 제시하였다. 전 문항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 상황에 대한 원인을 피연구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파악한 원인이 실제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야할 필요가 있다.

(채용) 개인 생활 침해

1-1-1. 이력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성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적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1-1-2. 면접 시 연애, 결혼, 출산, 육아계획 및 파트너 유무에 대해 질문을 받아본 적 있는가?

- 의미: 입사를 위한 절차(이력서, 면접 등) 중 근무 내용 및 조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를 받아 본 경험 여부
- 기업의 서류, 면접 전형 시 정체성에 따른 차별적인 질문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2017년 정부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내놓으며 비합리적인 채용 과정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여성으로써 남성과 비교하여 생애주기가 달리 차별되는 상황, 정책의 목적에 반하여 개선되지 않는 실재 채용 현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였다.
- 공론장의 많은 참가자들이 1-1-2 문항에 대해 크게 공감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면접 상황에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개인적 상황이 근로현장에서의 역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는 상황에 대한 불합리성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채용절차공정성에 관한 법률”이 여성, 비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항의 추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아직 대부분의 채용 현장에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해 차후 연구를 통해 “채용절차공정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선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채용) 소수자/여성 차별

1-1-3. 면접 시 특정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평가로 인해 취업 또는 계약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1-1-4.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 있는가?

1-1-5. 구직 시 공고와 다른 성비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가?

- 의미: 입사를 위한 절차(이력서, 면접 등) 중 근무 내용 및 조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정체성 또는 성별에 의한 차별 및 본인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여부
- 기업의 서류, 면접 전형 시 정체성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걱정, 두려움까지 질문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 1-1-5 문항의 경우 공론장에서 제안된 문항으로, 기업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성비와 실제 채용 성비의 차별 경험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어 추가로 작성되었다. 많은 기업에서 여성 채용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비율대로 채용되는 경우가 이어진다고 까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이런 채용 성비의 차이가 '차별'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1-5 문항은 설문 응답자의 경험의 유무를 물음과 동시에 성비 차별 사례의 존재를 자각하게 함을 목적으로 추가 되었다.

(고용) 조직 문화

- 1-2-1. 자신의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을 커밍아웃 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 1-2-2. 자신의 비혼지향을 이야기 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 1-2-3.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파트너/생활동반자의 성별정체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 1-2-4.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 1-2-5.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가?
- 1-2-6. 비혼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가?
- 1-2-16. 외모/복장에 대해 특정성별 고정관념적인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가?
- 1-2-17. 일터에 맞춰 생리주기, 임신/출산, 임신중단 등을 조절하기를 요구 받은 적이 있는가?

- 의미: 근로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수용하는 정도
- 많은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직 문화의 정체성 수용도에 대한 질문으로, 사내 사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과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걱정, 두려움까지 질문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 1-2-5, 1-2-6 문항의 경우 괴롭힘, 따돌림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원인을 피연구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파악한 원인이 실제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직장내 괴롭힘, 따돌림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론장에서 제시되었으나, 해당 경험의 원인을 피설문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것이라 판단되어 수정 없이 제시되었다.
- 또한 공론장에서 추가로 제시된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직장 내 호칭에 성별간 차이가 있는지”, “근로계약상 업무 외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가 있는지”, “직장 사조직의 젠더감수성의 정도”,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조직 문화에 해당법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는 법인지”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판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누락되었다. 차후 연구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실효성을 추가로 연구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고용) 조직 규정

- 1-2-7.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 1-2-8. 비혼지향에 따라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 1-2-9.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급여, 승진, 근로조건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가?
- 1-2-10. 혼인여부에 따라 급여, 승진, 근로조건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가?
- 1-2-14. 고용주는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가?
- 1-2-15. 특정 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규정이 있는가?

- 의미: 근로하고 있는 조직의 근로 조건 및 인사 규정이 다양한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정도
- 조직의 규정, 제도의 정체성에 따른 차별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걱정, 두려움까지 질문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 특히 1-2-8, 1-2-10, 1-2-14 문항의 경우 최근 기혼자들의 육아/가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공연히 발생하는 비혼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급여, 승진, 근로조건 및 근로상태-업무 몰아주기 등)에 대한 질문으로써 작성되었으며, 각종 업무상 불이익과 그에 대한 걱정의 원인을 피연구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파악한 원인이 실제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 불이익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론장에서 추가로 제시되었다.
- 또한 공론장에서 추가로 제시된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평등 위원회 등 문제 발생 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조직/제도의 유무”, “직장 공고직의 젠더감수성의 정도”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판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누락되었다. 차후 연구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실효성을 추가로 연구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고용) 복리후생

1-2-11. 비혼인 비혈연 관계에 대한 가족수당, 경조 휴가, 돌봄 휴가가 있는가?

1-2-12. 생리, 트랜지션 등으로 인한 호르몬 치료/수술, HIV감염, 개인적인 질병, 장애 특성에 따른 상태급변 등의 사유로 휴가를 쓸 수 있는가?

1-2-13. 이유를 말하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가?

- 의미: 근로하고 있는 조직의 복리후생(경조사 수당, 휴가 등) 적용 범위
- 1-2-11 문항은 조직 복리후생 제도 및 규정에서 수용하는 가족의 범위를 묻고자 하였다. 비혼자가 정상 가족을 기반으로 한 경조사, 상조 등의 제도 안에서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제도적으로 정상 가족/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파트너, 이성파트너, 친구, 친인척 외 정서적 가족, 하우스 메이트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피 연구자들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 1-2-12, 1-2-13 문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묻고자 하였다.
- 복리후생 파트의 문항의 경우 공론장 참가자들의 큰 차별적 상황에 대한 공감과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었으며,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휴가를 쓰기 힘들다는 근로 조건의 근본적인 문제 상황 또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 추가로 행복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전세자금 등의 제도 지원에 있어 차별 상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차후 연구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실효성을 추가로 연구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고용) 근로 환경

1-2-18. 일터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가?

- 의미: 다양한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여부
-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문항으로, 개인의 위생 및 건강과 관련된다.
- 이에 더해 “개인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근로환경 조성 및 도구의 구비여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정도”에 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개인의 정체성의 수만큼 다양한 근로 환경 조건을 모두 반영할 수 없어 누락되었다. 차후 해당 질문과 관련한 연구가 정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정도로 반영하고자 한다.

주거권

주거권의 지표 질문(안)은 임대차 계약 및 퇴거 상황, 실제 거주하는 동안의 상황,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상황으로 나누어 질문을 구성하였다. 각각 9문항, 8문항, 3문항이다. 상황별로 개인이 느끼는 불안 정도와 실제 차별을 받은 경험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계약 및 퇴거 상황은 특히 임대차 및 재산에 관련된 법제도 와도 관련된 부분이므로, 현행법과 제도에서 다양한 정체성 및 가구 구성으로 인해 배제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떤 이유로 차별/불안을 경험했는지를 묻기 보다는 차별/불안 경험의 유무만 묻는 질문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다인가구이나 현행법 상 비혈연 가족구성이 인정되지 않아 독립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혈연가족과 주거공간만 같이 사용할 뿐 실제 유의미한 관계망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지인들과 구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질문을 구성하거나 결과 값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관련 기존 법과 제도인 임대주택 및 주거대출제도가 다양한 정체성의 시민을 차별 없이 포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

(계약/퇴거)

- 2-1-1. 주거 계약 시 1인 가구라는 이유로 차별적 질문, 간섭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는가?
- 2-1-2. 주거 계약 시 혈연/혼인관계가 아닌 생활동반자에 대한 차별적 질문, 간섭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는가?
- 2-1-3. 주거 계약 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비혼지향 등이 알려질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한 적이 있는가?
- 2-1-4. 주거 계약 시 청년 여성 1인 가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인을 대동한 적이 있는가?
- 2-1-8.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퇴거요구를 받은 적 있는가?
- 2-1-9. 가구형태로 인해 퇴거요구를 받은 적 있는가?(반려동물 포함)

· 의미: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주거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해 받은 차별의 정도

·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원하는 주거지를 구하거나 계속 거주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다.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다양한 정체성 수용 정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질문과 본인이 느끼는 불안 정도를 살펴보는 질문으로 나뉜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성별이 드러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체성 및 가구구성원 간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질적인 차별의 경험보다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걱정하는 불안 정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체성이 드러난 경우, 계약이 무산될 정도의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사례들로 보완되면 좋다.

(계약/퇴거)

2-1-5. 파트너/생활동반자와 함께 임대차 계약 시,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관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2-1-6.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해소 시, 임대보증금 또는 부동산이라는 재산형성 기여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 의미: 다양한 가구구성을 포괄하는 법과 제도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정도
- 주거 관련 계약과 계약의 해지에 있어 다양한 가구 구성을 포괄하는 법과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제도적으로 비혈연/비혼인 관계에서 임대차 공동 계약은 가능하지만, 2-1-5 문항을 통해 실제 어려움 없이 공동계약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동 계약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지, 번거로움을 이유로 집주인과 중개사가 꺼려하는지, 해당 제도가 실제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 2-1-6 문항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재산의 형성과 분배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법적으로 재산권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거주)

2-2-1. 성별 분리된 기숙사, 공동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가?

2-2-2.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 또는 정체성에 따른 퇴거 압박 또는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는가?

2-2-3.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 또는 집에 방문하는 사람과 관계에 대해 이웃이 물어보는 것을 걱정할 적이 있는가?

· 의미: 공동주거 및 이웃과 관계에서 다양한 정체성의 수용 정도

·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망인 공동거주 구성원 및 이웃의 정체성 수용도를 묻는 문항이다. 2-2-2문항은 정체성이 이웃 등을 통해 집 주인에게 알려졌을 시에 실질적인 압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일상적인 불안감은 2-2-3 문항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시 지역인 서울의 경우, 정체성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웃과 관계 맺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불안감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해 주거지역에서 관계단절이 발생하는지, 이로 인해 안전이나 주거의 물리적 질 개선 등 다른 부분까지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는지, 이 문제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사/집수리/리모델링)

2-3-1. 이사, 집수리 또는 리모델링 시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하여 의견이 무시된 적 있는가?

2-3-2. 집수리가 필요할 시,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요구한 것이 무시된 적 있는가?

2-3-3. 집주인이 사전연락 및 동의 없이 집에 무단침입 한 적이 있는가?

- 의미: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해 받은 차별이나 불이익
- 세입자에게 집수리는 주로 집주인과 관계와 연결된 문제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맺어진 복잡한 관계이며, 집수리에서는 특히 계급적 요인이 주되게 작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문항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건강권

건강권의 지표 질문(안)은 ‘의료’, ‘몸/운동’, ‘정신/마음’, ‘공공시설’, ‘결정권 위임’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에 해당하는 질문을 구성하였다. ‘의료’ 10문항, ‘몸/운동’ 8문항, ‘정신/마음’ 8문항, ‘위생/질병’ 5문항, ‘결정권 위임’ 6문항으로 공론장에서 제시되었다.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초안에서는 식생활에 대한 경험까지 건강권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공론장을 통해 문항을 평가한 결과 식생활 경험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판단되어 식생활 부문은 제외하고 문화권으로 이동시켰다.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공론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례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의료’ 10문항, ‘몸/운동’ 10문항, ‘정신/마음’ 8문항, ‘위생/질병’ 3문항, ‘결정권 위임’ 7문항으로, 총 38문항을 제시하였다. ‘위생/질병’ 부분은 공공시설이용과 연결되어 ‘위생/질병’ 대신에 더 정확한 상황, 장소,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 문항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 상황에 대한 원인을 피연구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파악한 원인이 실제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 고정관념으로 인한 간접적 차별

- 3-1-1. 삽입/섹스, ‘이성교제’ 결혼, 출산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가?
- 3-1-2.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그것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불편해서) 병원진료를 포기(미리 체념)한 적이 있는가?
- 3-1-3. 의료인의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가?(탐수술, 산부인과 진료, 불임수술, 호르몬치료 등)
- 3-1-4. 혼인 여부에 관한 질문을 진료와 무관하게 받은 적이 있는가?(건강검진, 문진, 진료 시)
- 3-1-5.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의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경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차별 발언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자체를 주저하게 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성애’, ‘출산을 위한 몸’ 을 전제하는 이성애중심주의에 입각한 차별을 겪었는지에 대한 여부

- 차별 경험은 때로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모호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차별이 발생하기도 전에 당사자가 미리 잠재적 차별 상황을 피하기도 하고, 실제로 차별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조차, 그것이 차별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도 많다.
- 공론장에서 차별의 경험이 낮거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하였다. 소수성을 드러내면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이 우선되기에 차별적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미리 체념한다.' 또는 '포기한다'는 항목을 추가 설계했다.
- 이성애중심주의와 그로 인한 여성의 몸을 '출산'과 연결시키는 사고방식은 소수자의 몸과 건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평등하게 의뢰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비이성애자,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분리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현재 의뢰서비스의 제도적, 문화적 한계로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였다.

(의료) 보험제도의 한계

- 3-1-6. 국민건강보험에 비혼인/비혈연 관계의 생활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적 있는가?
- 3-1-7.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지원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 있는가?(심리 상담 등)
- 3-1-8. 파트너 혹은 생활동반자가 나의 법적가족이 아니어서 간병이나 면회를 제한 받은 적이 있는가?
- 3-1-9. 내가 파트너 혹은 생활동반자의 법적가족이 아니어서 간병이나 면회를 제한 받은 적이 있는가?
- 3-1-10. 나의 법적가족이 일상적으로 나를 돌보는 사람과 일치하는가?

- 의미: 현재 보험제도 및 의료법 아래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보호자 지정을 할 때 차별 경험의 여부
- 지금 설계된 보험제도 안에서는 소수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황(심리적, 신체적)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제도 또한 가족을 중심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법적 가족형태가 아닌 다른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법적 보호자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제도 내의 한계점을 소수자의 경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 특히 3-1-6, 3-1-8, 3-1-9, 3-1-10 문항의 경우 건강과 관계에 대한 설문으로
현 질문의 맥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드러나면 응답하기 쉬울 것이라는 의
견이 공론장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몸/운동) 고정관념

- 3-2-1.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 3-2-2.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운동종목의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가?
- 3-2-3. 성차별적인 피드백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혹은 불편했던 적이 있는가?)
- 3-2-4. 임신/출산을 이유로 흡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 있는가?

- 의미: 소수자 당사자가 본인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혹은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고,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우리는 몸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자에게는 건강을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도 많은 고정관념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여성답지 못한 몸'을 바라보는 시선과 잦은, 성별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해서 감당해야 하는 불편함, 특정성별에게 더 관대하게 열려 있는 스포츠 종목들 등 단순한 체육 활동조차도 소수자들에게는 녹록치 않음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 3-2-1의 설문의 경우 '고정관념 없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정보를 어디서 찾는지 알고 있는가?'등으로 정보자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문항목을 설계해야 개인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몸/운동) 꾸밈노동

3-2-5. 다이어트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가?(미용 체중을 기준으로 체중 감량을 계획해 본 적 있는가?)

3-2-6. 꾸밈노동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가?

3-2-7. 다이어트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다이어트 약 부작용, 식이장애 등)

3-2-8. 꾸밈노동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하이힐로 인한 발 부상, 화장으로 인한 비립종 등)

· 의미: 여성으로서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

· 성차별적인 구도 아래에서 여성들에게 유난히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꾸밈노동이다. 꾸밈노동은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꾸밈노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상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꾸밈노동의 결과 건강에 미친 영향들을 질문해 보았다.

· 공론장에서 객관식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별경험 주관식으로 받으면 개인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추후 설문이후에 FGI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신/마음) 소수자의 마음 건강

3-3-1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가?

3-3-2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3-3-3 타인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이 드러났을 때, 미움을 받거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가?

- 의미: 소수자가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해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소수자가 놓여 있는 상황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벼운 불안과 걱정에서부터, 중증의 정신 질환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였다.
- 3-3-3 항목에서 미움을 받는 것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의 상당한 거리가 있기에 질문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마음) 전문가 및 제도의 불충분함

- 3-3-4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감과 안전감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3-3-5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감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3-3-6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감을 지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3-3-7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감을 지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3-3-8 상담을 받았을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의미: 다양한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제도 존재 여부
-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충분히 있는지, 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개인의 정신 건강 증진과 관련된다.
- 각 설문항목마다 상태가 제시되는데, 사전에 기본정보에서 혼인여부,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반복적으로 유사한 설문항목이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후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

(위생/질병) 공공시설 이용과 연계된 건강권

- 3-4-1. 공용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느끼는가?
- 3-4-2. 공용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을 망설이거나 미룬 적이 있는가?
- 3-4-3. 공용화장실 이용 혹은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방광염 등)
- 3-4-4. 공용화장실에서 세척이나 세탁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 생리대나 생리컵 사용을 포기(주저)한 적이 있는가?
- 3-4-5. 공용 샤워실/탈의실 사용이 어려워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 의미: 공공시설 이용 시 차별 경험의 여부

- 여성과 남성, 두 가지 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성별이분법은 관념적으로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이기도 하지만, 그를 기반으로 설계된 공공시설 이용까지도 어렵게 한다. 자신의 성별, 그리고 몸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소수자에게는 공공장소에서 그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여성'의 공간과 '남성'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용화장실, 공용 샤워실/탈의실을 두고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부터가 소수자에게는 고민의 시작이다. 성중립 공공시설이 거의 부재한 한국의 현실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소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건강권으로 이어져있다는 것들 드러내기 위해 설계하였다.

- 3-4-1, 3-4-2, 3-4-3 항목은 공용화장실 이용 시 어려움의 단계 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 상황을 알기에 연속하여 설문항목을 설계했지만 유사한 질문을 반복한 느낌을 주어서 차후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정권 위임) 법적 가족 기반한 제도의 한계

- 3-5-1. 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의식불명 등) 의료결정권을 위임하고 싶은 사람이 법적 가족인가?
- 3-5-2.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파트너/생활동반자가 나에게 대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3-5-3.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파트너/생활동반자가 나에게 대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봐 염려한 적 있는가? 혹은 결정권 위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 3-5-4.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가?
- 3-5-5. 나의 장례 또는 유품 정리 등이 나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3-5-6. 사망 시 나의 시신을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사람이 인도받지 못할까 봐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의미: 본인이 원하는 이에게 의료결정권을 위임하고자 때 차별을 겪었는지에 대한 여부
-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9.03.28)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이르면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 가족이 2명 이상의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이 때 환자 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 동성혼도, 생활동반자법도 구비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성소수자는 자신이 가족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사 시 결정권을 대리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 앞에서, 소수자를 결코 포함시키지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를 질문하고자 하였다.

문화권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초안에서 문화권 지표 질문(안)은 3항목으로, '시설/플랫폼' 5문항, '대중미디어' 7문항, '네트워크/행사' 7문항이었다. 그러나 공론장 논의 이후 문화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고려하여 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 소비와 제작 일반에 대한 경험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공론장 참여자들이 의견을 주었다. 또 건강권에 있는 '식생활' 항목이 문화권으로 이동하면서 '먹거리/패션의류' 항목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공론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설문조사는 항목을 추가 보완하여 설계했다.

'시설/플랫폼' 7문항, '콘텐츠 향유(TV, 상업영화, 가요, 웹툰 게임 등)' 12문항, '콘텐츠 생산(기획 및 제작)' 3문항, '먹거리/패션의류' 7문항으로 총 29문항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행사/모임' 부문은 실수로 삽입하지 못했다.

전 문항에 있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창조하는 활동을 포괄하고, 문화콘텐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각 특성별로 경험의 차이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플랫폼/시설)

- 4-1-1. 회원가입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불필요하게 요구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 4-1-2. 회원가입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요구하여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4-1-3.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커플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망설인 적이 있는가?
- 4-1-4.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커플 이벤트 참여에 제한을 당한 적이 있는가?
- 4-1-5. 공공도서관에 여성/비혼/퀴어 관련 도서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경험이 있는가?
- 4-1-6. 살고 있는 동네에 여성/비혼/퀴어 관련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서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있는가?
- 4-1-7.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문화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가?

- 의미: 문화 활동을 위해 플랫폼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의 경험
- 문화 활동을 위한 플랫폼이나 시설이라 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아울러 말한다. 온라인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 문화시설이 부족하거나 문화시설 내의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평등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였다.
- 4-1-1, 4-1-3은 보다 포착하기 어려운 차별적 경험도 발견해내기 위해 추가되었다. 예컨대 우리가 반드시 크게 불편하거나 너무나 어렵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성별정보를 요구한다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는 커플 이벤트에 응모하려다가 참여를 제지당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응모를 망설이고, 응모 자체를 잘 하지 않게 되는(차별적 인식 때문에 스스로 먼저 검열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경험을 반영했다.

(모임/행사)

- 4-2-1.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 비혼지향 등을 밝히고 활동하는 모임/동호회가 있는가?
- 4-2-2. 모임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봐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을 숨긴 경험이 있는가?
- 4-2-3. 모임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봐 비혼지향을 숨긴 경험이 있는가?
- 4-2-4. 이성애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모임 문화로 인해 참여에 곤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4-2-5. 비혼/여성/퀴어 행사 참가로 인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한 적이 있는가?
- 4-2-6. 비혼/여성/퀴어 행사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 의미: 문화 활동을 위해 행사나 모임에 참여할 때의 경험
- 공론장에서 모인 참여자들이 4-2-2, 4-2-3과 같은 경험, 그리고 4-2-5과 같은 고민을 한 경험을 많이 들려주었다. 비혼/여성/퀴어 행사, 특히 퀴어 행사의 경우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크고,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 취향공동체, 문화적 관심요소와 같은 표현은 혼동을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차후 연구에서 모임운영, 커뮤니티 조성 등에 대한 설문항목을 추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향유 - TV, 상업영화, 가요, 웹툰, 게임 등)

- 4-3-1. 어떤 미디어 콘텐츠가 여성/비혼/퀴어에게 가장 친화적이라고 느끼는가?
- 4-3-2.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소비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고민한 적이 있는가?
- 4-3-3.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소비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콘텐츠 소지를 포기하거나 기록을 남기기를 고민한 적이 있는가? (티켓, 멀티플렉스, 포인트, 영수증 등)
- 4-3-4.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콘텐츠가 있는가?
- 4-3-5. 비혼지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콘텐츠가 있는가?
- 4-3-6. 최근 접한 콘텐츠 중 중심인물 가운데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 4-3-7. 최근 접한 콘텐츠 중 서사의 배경이 나의 현실과 동질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는가?
- 4-3-8. 콘텐츠에서 접한 실제인물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가?
- 4-3-9. 콘텐츠에서 묘사한 가상인물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가?
- 4-3-10. 콘텐츠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희화화된 경험이 있는가?

4-3-11.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가 다수라고 생각하는가?

4-3-12.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의 소비를 중단한 적이 있는가?

· 의미: 콘텐츠 향유 시, 인물, 서사에 동질감을 느끼는지 배제됨을 느끼는지의 여부

· 4-3-5, 4-3-5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콘텐츠가 있는지 질문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크게 두 가지, 배경이 되는 현실이 동질적이어서 몰입할 수 있는가, 등장인물에게 정서적으로 몰입해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가를 더 묻기로 했다. 즉, 배경이 현실적인지, 인물이 현실적인지 질문하였다.

· 지표 질문 구성의 한계로 이성애중심적인 콘텐츠에 대해 각자의 체감도가 다르고,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의 감각도 다르지만 객관식 응답으로 제시하였다.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주관식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 생산 - 기획 및 제작)

4-4-1. 미디어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여성/비혼/퀴어와 관련된 콘텐츠라는 이유로 제작이 반려된 적 있는가?

4-4-2.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제작을 망설인 적이 있는가?

4-4-3. 성차별적인 피드백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 의미: 콘텐츠 생산자로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내용에 따른 차별에 대한 경험과 두려움 여부
- 공론장에 참여한 대다수가 콘텐츠의 생산자이기 보다는 향유자였기에 질문들이 더 확장하지 못했다. 추후에 생산자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지표 질문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먹거리/패션의류)

- 4-5-1. 옷가게에서 혼인여부에 따라 옷을 추천 받은 경험이 있는가?
- 4-5-2. 옷가게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입고 싶은 옷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 4-5-3. 식당 이용 또는 배달음식 주문시, 먹고 싶은 음식을 2인 이상부터 시킬 수 있어서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 4-5-4. 식당 또는 외부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타인이 괴롭히거나 위협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
- 4-5-5. 식당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의 음식이 다르게 나오는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4-5-6. 동일 가격의 소포장, 대포장 식재료 중에서 보관 및 음식물 쓰레기 걱정으로 소포장 식재료를 선택한 경험이 있는가?
- 4-5-7. 특정 성별정체성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추천 받은 경험이 있는가?

- 의미: 먹거리, 패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함과 차별경험에 대한 여부
- 옷가게, 식당 등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의 어려움과 차별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설계했다. 혼인여부, 성별정체성, 1인 가구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열했고, 이 경험들을 불이익과 어려움으로 진단하였다.
- 다양한 상황, 장소, 활동에서 개인의 경험들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들을 더 많이 설계하지 못한 것이 한계이고, 추후 문화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룹인터뷰를 통해 질문을 보완하려고 한다.

안전권

안전권과 관련한 지표 질문(안)은 ‘집/가족’, ‘공공시설’, ‘보호시설’, ‘일상/여가’, ‘위급’ 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질문으로 예상되었다. ‘집/가족’ 1문항, ‘공공장소’ 11문항, ‘보호시설’ 4문항, ‘일상/여가’ 4문항, ‘위급’ 3문항으로 총 23문항을 공론장에서 제시하였고,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공론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례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 단계를 거쳐 ‘집/가족’ 4문항, ‘공공장소’섹션을 ‘공공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15문항, ‘보호시설’ 5문항, ‘일상/여가’ 7문항, ‘위급’ 4문항으로 총 35문항을 제시하였다. 전 문항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 상황에 대한 원인을 피연구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파악한 원인이 실제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야할 필요가 있다.

(집/가족) 개인의 안전하다 느낄 수 있는 공간/관계

5-1-1. 법적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5-1-2. 생활동반자, 동거인, 신뢰관계인, 주변인들과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5-1-3. 법적가족 내부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5-1-4. 주변 이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의미: 개인이 물리적으로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과 정서적으로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족 등)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
- 5-1-1 문항의 경우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안에서의 정서적 안정 상태를 묻고자 작성된 질문으로, 공론장의 많은 참가자들이 제도적, 법적 가족관계와 가장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의 차이에 공감을 하였다. 이에 5-1-2, 5-1-3, 4-1-4 문항을 추가하여 물리적/정서적 안정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항을 재구조화 하였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에서의 안전

- 5-2-1. 밤에 거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5-2-2. 실제 혹은 타인이 인지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시선, 질문 포함)
- 5-2-3. 실제 혹은 타인이 인지한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시선, 질문 포함)
- 5-2-4. 택시 이용 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5-2-5. 대중교통 이용 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5-2-6. 파트너와 애정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 5-2-7. 파트너와 애정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간섭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 5-2-8.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호신)장비 등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가?
- 5-2-9. 서울 '여성안심 홈세트' 지원 등 지자체 제도의 수혜 경험이 있는가?
- 5-2-10. 서울 '여성안심 홈세트' 지원 등의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5-2-11. 페스티벌이나 공연장 등에서 성별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으로 인해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5-2-12. 병원 이용 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5-2-13.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불법촬영이나 갑작스러운 물리적인 위해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5-2-14. 학교생활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5-2-15. 초중고 필수 교육과정에서 '자기방어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 의미: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며 본인의 성별,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 5-2-1부터 5-2-10 문항을 제시하여 이동 상황에서 자신의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5-2-2, 5-2-3 문항의 경우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이 인지한 개인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 경험을 묻고자 하였으며, 5-2-6, 5-2-7 문항의 경우 (동성)파트너와의 애정행위가 혐오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였다. 또한 5-2-9, 5-2-10 문항은 최근 서울시의 여성안심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1인 가구에게 디지털 비디오판,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의 수혜경험과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5-2-11 문항부터 5-2-15 문항의 경우 공론장에서 제안된 문항으로 5-2-11, 5-2-12, 5-2-13, 5-2-14 문항은 공공장소와 차별/혐오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였고, 5-2-15문항의 경우 일반 이동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물음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작성되었다.

(보호시설) 정체성 공개 후 보호 시설 사용 가능 여부

- 5-3-1.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해서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 5-3-2.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이용을 포기한 적 있는가?
- 5-3-3.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가?
- 5-3-4. 입소 및 이용을 위해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을 숨긴 적이 있는가?
- 5-3-5. 성별 분리된 기숙사, 공동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의미: 개인이 필요로 인해 접근하고자 하는 보호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 개인의 물리적/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호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타인에 공개된 개인의 정체성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등의 차별 상황 경험에 대해 묻고자 하였다. 특히 4-3-1 문항의 경우 개인의 위기 상황에 따라 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였으나,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가 불가하여 이용을 포기해야하는 경험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 5-3-5 문항의 경우 공론장에서 추가로 작성된 질문으로, 보호 시설뿐 아니라 개인의 물리적 한계 등의 필요에 의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자신의 정체성에 의해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일상/여가) 일상, 여가 생활 중 느끼는 불안감 여부

- 5-4-1. 여행지에서 불법촬영 장비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 5-4-2. 숙박시설 이용 시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차별적 질문, 대우를 받은 적 있는가?
- 5-4-3. 혐오범죄 뉴스를 보고 불안감, 공포를 느낀 적이 있는가?
- 5-4-4. 불안감,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아 뉴스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적이 있는가?
- 5-4-5. 인터넷상의 공간에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으로 인해 위협 받은 경험이 있는가?
- 5-4-6. 인터넷상의 공간에서 본인의 사진, 영상 유포에 대한 공포를 느낀 경험이 있는가?
- 5-4-7. 성별정체성 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안전을 목적으로 추가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는가?

- 의미: 일상/여가 생활 중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 일상적, 규칙적으로 행하는 상황이나, 여행 등의 여가 생활에서 본인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5-4-1, 5-4-3 문항의 경우 최근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 등의 혐오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을지 등 불안의 경험을 묻고자 하였다. 또한 4-4-4문항은 그러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분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 5-4-5, 5-4-6문항의 경우 공론장을 통해 추가된 항목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범위를 인터넷 공간으로 넓히고자 추가 작성되었으며, 5-4-7문항의 경우 개인의 안전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을 생각해 봄으로써 피설문자가 '차별 받는 상황'임을 인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가되었다. 개인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일상적인 상황을 마련해 볼 수 있으며, 차후 피연구자의 특성에 따라 일상적인 상황을 구체화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위급상황)

5-5-1. 위급상황에서 법적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끼는가?

5-5-2. 위급상황에서 급히 찾아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친구가 있는가?

5-5-3. 재난 재해 시 혈연/혼인관계가 아니어서 파트너/생활동반자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5-5-4. 국가의 안전체계(공권력, 경찰, 소방 등)에 도움을 청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의미: 위급 상황에서 개인이 고립되지 않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 5-5-1, 5-5-2, 5-5-4 문항의 경우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위급 상황에서 도움 또는 정서적 의지를 줄 수 있는 관계의 유무를 묻는 질문으로, 법적/제도적 가족과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는 관계에 차이가 있는 공론장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 5-5-4 문항의 경우,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법적/제도적 가족과, 그 외 정서적 관계 이외에도 개인을 둘러싼 안전체계와의 관계 또한 포함하기 위하여 공론장에서 추가 의견이 제시되어 추가 작성 되었다.

3. 여러분은 혼자 '잘' 살아내고 있나요? [설문조사]



01 설문조사 개요

[1인 생활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민, 청년, 여성, 퀴어, 1인 가구,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대상, 86명 참여
조사항목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전체 151항목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9년 8월 6일(화)~8월 18일(일), 12일 진행

-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5가지(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사회적 권리에 관해 150문항의 설문조사를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12일간 진행하여 86명의 응답을 받았다.

0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기본 현황 분석

- 설문 응답자 중 자신인 생각하는 성별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젠더퀴어로 생각한다고 한 사람이 14%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 질문인 국가에 등록된 성별로는 93%가 여성, 7%가 남성이라고 답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응답을 두고 분석하였을 때, 약 17%정도의 사람이 성별이분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 물음을 가지고 있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설문 응답자의 성적지향은 양성애가 2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범성애가 24.4%, 동성애가 22.1%, 이성애가 11.6% 순이었고, 무성애, 퀘스처너리 등의 응답도 있었다. 동성애보다 양성애와 범성애의 응답순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성적지향 또한 성별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 혹은 타인이 본인의 성별정체성을 무엇으로 정체화 하든 상관없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설문 응답자의 연령으로는 27세~29세가 24.4%로 가장 많았고, 30세~32세가 22.1%, 33세~35세가 20.9%, 24세~26세 16.3%, 21세~23세 14% 순으로 참여하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립을 고민하며 자기 삶을 모색하는 시기의 사람들에게 '1인 생활보장'은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다.

- 설문 응답자의 가구형태로는 1인 가구가 45.3%로 가장 높았고, 2인 가구가 25.6%, 다인가구가 25.6% 그밖에 하우스메이트/비혼양육모/쉐어하우스 등의 순이었다.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이지만 1인 가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보면서 4인 가구 중심의 정책방향을 1인 가구로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질문에 반려 동/식물(23.3%), 형제 자매(23.3%), 부모 (23.3%)의 응답결과로 개인의 삶에 반려 동/식물의 비중이 부모와 형제자매만큼 높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 “당신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질문에 주거권(39.5%), 안전권(36%), 노동권(12.8%), 건강권(10.5%), 문화권(1.2%) 순으로 주거권과 안전권이 다른 권리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이 응답으로 1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권리로 주거권으로 표현되는 타인과 자신의 안전거리, 안전권으로 읽히는 보이지 않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가 1인 생활보장에 가장 중요한 권리로 확인됐다. 서로간의 예절, 다양성 존중 같은 지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당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는 누구입니까?” 질문에 파트너(38%), 친구(26%), 가족(혈연, 법률혼배우자 22%) 그 외 SNS 지인, 동호회/커뮤니티 회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 “법적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에서 전혀 아니다(18%), 아니다(18%), 보통이다(28%), 그렇다(20%), 매우 그렇다(16%)로, 더 이상 가족이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권리별 응답 분석

노동권

- “이력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성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적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많다(24.4%), 보통이다(17.4%), 매우 많다(16.3%) 순으로 응답했다. 해당 업무와 성별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실태에 응답자의 다수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 “면접 시 연애, 결혼, 출산, 육아계획 및 파트너 유무에 대해 질문을 받아 본 적 있는가?”, “면접 시 특정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평가로 인해 취업 또는 계약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 있는가?” “구직 시 공고와 다른 성비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가?”, 의 질문에 “없다”로 응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1% 이상의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응답이 적다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반응해야 한다.
-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파트너/생활동반자의 성별정체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27.9%), 많다(22.1%),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30.2%), 많다(20.9%)로 응답했다. 일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필요이상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25.6%), 없다(40.7%)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와 연결된다. 이 질문의 응답은 매우 많다(30.2%), 많다(17.4%) 순으로 반 정도 걱정을 하고 있다. 걱정을 하기에 커밍아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도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 “비혼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가?”와 “비혼지향에 따라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두 질문 모두 없다가 36%, 30.2%로 응답률이 제일 높았다. 이 질문들과 함께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이 질문의 응답은 전혀 없다(4.6%), 없다(22.1%)로 사회적으로 비혼에 대한 수용도가 성별정체성/성적지향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급여, 승진, 근로조건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가?”, “혼인여부에 따라 급여, 승진, 근로조건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가?”는 응답비율이 비슷하다. 이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응답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일터에 맞춰 생리주기, 임신/출산, 임신 중단 등을 조절하기를 요구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없다(33.7%), 없다(39.5%)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일터의 환경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일터에 비혼인, 비혈연 생활동반관계에 대한 경조사휴가, 가족수당,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있는가?” 질문에 없다(79%), 해당 없다(고용경험 없음, 프리랜서 21%)로 응답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질문은 설문응답자들에게 유의미한 질문이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부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죽음은 경조사휴가를 쓸 수 없고, 생활동반관계의 사람을 부양하거나 돌보고 있어도 가족수당을 받는대거나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 “생리, 트랜지션 등으로 인한 호르몬치료/수술, HIV감염, 개인적인 질병, 장애 특성에 따른 상태급변 등의 사유로 휴가를 쓸 수 있는가?“, “이유를 말하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가?” 두 질문의 응답비율도 비슷하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이든 휴가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소수자라서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누구든 휴가를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용주는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가?” 질문에 “아니다(46.5%)”로, 그렇다(27.9%)로 약 1.5배 정도 차이로 다수의 일터에서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분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산/육아 휴직, 가족 돌봄 휴직 제도 등을 통해 동료가 사라진 빈자리에 이전부터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산/육아 휴직,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할 수 없는 동료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는 개인에게 일의 과부하가 올 뿐만 아니라 동료 간의 관계 또한 틀어지게 된다.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한다.

- “특정 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규정이 있는가?” 질문에 없다(54.7%), 있다(27.9%)로 규정이 없는 일터가 1.5배 정도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특정 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규정이 있는 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관점으로 노동정책이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외모/복장에 대해 특정 성별 고정관념적인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20.9%), 많다(20.9%), 보통이다(29.1%), 없다(19.8%), 전혀 없다(1.2%) 순으로 응답했다. 보통이다(29.1%)가 제일 높은 응답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모/복장에 대한 특정 성별 고정관념적인 지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당연하게 여기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 체념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 “일터에 성중립화장실이 있는가” 질문에 없다(80.2%), 고용경험이 없음으로 해당 없다(9.3%)로 응답자 대다수의 일터에 성중립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중립화장실에 대한 논의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선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판단했다. 이 내용은 아래 건강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주거권

- “주거 계약 시 1인 가구라는 이유로 차별적 질문 간섭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는가?”, “주거 계약 시 혈연/혼인관계가 아닌 생활동반자에 대한 차별적 질문, 간섭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는가?” 의 질문의 응답비율이 비슷하다. 많다와 보통이다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혼인관계가 아닌 1인 가구 또는 동성파트너, 다양한 생활동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 “주거 계약 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비혼지향 등이 알려질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8.1%), 많다(), 보통이다(19.8%), 없다(24.4%), 전혀 없다(14%) 순으로 응답했다. “일터에서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매우 많다(30.2%), 많다(17.4%), 보통이다(17.4%), 없다(22.1%), 전혀 없다(4.1%) 순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많다 응답률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비교한 결과를 보면 주거계약은 갑을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고, 고용계약은 갑을관계의 ‘을’의 위치로 본인의 위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주거 계약 시 청년 여성 1인 가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인을 대동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24.4%), 많다(27.9%),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이익에 대비하여 타인을 대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 “월세 및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더 안전한 집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30.2%), 많다(29.1%), 보통이다(17.4%)로 응답했다. 또 “방범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15.1%), 많다 20.9%), 보통이다(31.4%)로 세 질문의 응답을 보았을 때, 개인 스스로 안전

함을 담보하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이상의 비용과 에너지와 관계자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 “파트너/생활동반자와 함께 임대차 계약 시,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관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질문에 해당없다.(계약경험 없음/ 42.9%)로 제일 높았고, 매우 많다(10.7%), 많다(10.7%), 보통이다(10.7%), 없다(22.6%)로 응답했다.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있다는 것을 보고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함을 시사한다.
- 가구형태로 인해 퇴거요구를 받은 적 있는가?(반려동물 포함) 질문에 전혀 없다(33.7%), 없다(26.7%), 보통이다(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많다, 매우 많다는 응답자를 교차분석하면 반려동물/식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성별 분리된 기숙사, 공동주거를 하는데 있어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15.1%), 없다(32.6%), 보통이다(14%), 많다(10.5%), 매우 많다(10.5%)로 응답했다. 현재의 응답만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고, 불편으로 감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관식 답변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면 교차분석을 통해 판단 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생활동반자와 관계 또는 정체성에 따른 퇴거 압박 또는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는가?” 질문의 매우 많다(1.2%),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 또는 집에 방문하는 사람과 관계에 대해 이웃이 물어보는 것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질문의 매우 많다(12.8%) 응답이 13배 정도 높다. 이로 현재 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기보다 차별적 상황이 발생할까봐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집 안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걱정이 될 때가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33.7%), 많다(29.1%), “집에서 혼자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택배를 받는 것이 걱정될 때가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40.7%), 많다(33.7%), “집 안에서 불법촬영장비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32.6%), 많다(22.1%), “혼자 사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위장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 (25.6%), 많다(31.4%)로 개인이 가장 편하게 있어야 하는 집에서도 과반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이사, 집수리 또는 리모델링 시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하여 의견이 무시된 적 있는가?” 질문과 “집수리가 필요할 시,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요구한 것이 무시된 적 있는가?” 질문의 응답비율이 유사하다. 없다가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이지만 많도와 매우 많은 응답을 무시하기 어렵다.
- “집주인이 사전연락 및 동의 없이 집에 무단침입 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14%), 없다(37.2%), 보통이다(14%), 많다(11.6%), 매우 많다(3.5%) 순으로 응답했다. 적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침입을 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집주인 대상의 인권감수성교육이 필요하다.

건강권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15.1%), 없다(41.9%)로 응답했다. 과반이 운동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운동 커뮤니티가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운동종목의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7%), 많다(22.1%)로 “운동을 할 시, 성차별적인 피드백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불편했던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14%), 많다(33.7%)로 하고 싶은 운동의 제한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또 “운동을 할 시, 성차별적인 피드백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5.8%), 많다(15.1%)로 응답했다. 이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운동 횟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을 설계해야 한다.
- “미용체중을 기준으로 체중 감량을 계획해 본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38.4%), 많다(27.9%)로 응답했다. 미용을 위해 과반이 체중을 감량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다이어트나 꾸밈노동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46.3%), 많다(34.9%)로 본인 스스로 체중 감량을 계획한 것 보다는 사회적으로 다이어트와 꾸밈노동을 개인에게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 “다이어트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다이어트 약 부작용, 식이장애 등)”질문에 매우 많다(12.8%), 많다(22.1%)로 응답자의 1/3 이상이 다이어트로 인해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긴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꾸밈노동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하이힐로 인한 발부상, 화장으로 인한 비립종 등)질문에 매우 많다(18.6%), 많다(14%)로 업무 외에도 꾸밈노동을 추가적으로 하며 그로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함도 알 수 있다.
- “공용샤워실/탈의실 사용이 어려워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12.8%), 많다(14%)로 응답했다. 추후 연구에서 포기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설계하여 응답자의 현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신/출산을 이유로 흡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 있는가?”질문에 해당없음(비흡연)을 제외하면 매우 많다(24.3%), 많다(19.5%)로 응답하여 임신/출산을 이유로 흡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 적 있는가?”질문에 매우 많다(43%), 많다(33.7%)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18.6%), 많다(17.4%)로 응답한 결과로 보면 상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상담을 받았을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질문에 해당없음을 제외하면 매우 많다(18.5%), 많다(29.6%)로 응답했다. 상담을 받은 응답자 중 에 현재 상담과정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질문에 응답비율이 비슷하다. 없다. 전혀 없다로 현재 문제를 함께 나눠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정보가 대중적으로 전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지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지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질문의 응답비율이 유사하다. 없다,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아서 이 부분에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 “타인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이 드러났을 때, 미움을 받거나 관계가 단절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39.5%), 많다(18.6%)로 응답했다. 과반이 성별정체성과 혹은 성적지향을 드러내길 두려워하고, 본인이 말하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공용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을 망설이거나 미룬 적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10.5%), 없다(18.6%), 보통이다(17.4%), 많다(32.6%), 매우 많다(20.9%)로 응답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용을 망설이거나 미루는 이유에 대해 응답 받을 수 있다면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용화장실 이용 혹은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방광염 등)” 질문에는 전혀 없다(26.7%), 없다(44.2%), 보통이다(19.8%), 많다(7%), 매우 많다(2.3%) 순으로 응답했다. 공용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으로 이용을 망설이거나 미뤄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공용화장실에서 세척이나 세탁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 생리대나 생리컵 사용을 주저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25.6%), 많다(29.1%)로 응답했다. 이 질문을 좀 더 의미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래 면 생리대나 생리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지점이다.
- “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의식불명 등) 의료결정권을 위임하고 싶은 사람이 법적 가족인가?” 질문에 그렇다(46.5%), 아니다(48.8%)로 로 응답했다. 응답결과를 통해 법적 가족이 더 이상 개인의 안전망의 최소단위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파트너/생활동반자가 나에게 대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질문에 없다(86%), 있다(8.1%)로 응답했다. 이 질문은 의료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기 위한 질문이자 사회적으로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확인하고자 설계한 질문으로 없다는 높은 응답률은 당연하다.

- “나에 대한 의료결정권을 비혈연/비혼인 파트너/생활동반자에게 위임 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파트너/생활 동반자가 나에게 대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봐 염려한 적 있는가?”, “사망 시 나의 시신을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사람이 인도받지 못할까봐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은 응답비율이 유사하다. 과반이 이 부분에 대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17.4%), 많다(29.1%)로 “나의 장례 또는 유품정리 등이 나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봐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34.9%), 많다(24.4%)로 응답했다. 응답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본인 사망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부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권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불필요하게 요구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51.2%), 많다(27.9%)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불필요하게 요구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회원가입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요구하여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25.6%), 많다(23.3%), 보통이다(23.3%)로 회원가입시 당연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커플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망설인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24.4%), 많다(27.9%)로 응답하였다. 연결하여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커플 이벤트 참여에 제한을 당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11.6%), 많다(15.5%)로 확인되는 것을 보며 참여를 망설이고 참여하지 못하거나 안했기에 참여 제한을 당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공공도서관에서 여성/비혼/퀴어 관련 도서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24.4%), 없다(37.2%), 보통이다(9.3%), 많다(10.5%), 매우 많다(3.5%)로 응답했다. 반려된 경험이 존재함에 주목해야 한다.
- “살고 있는 동네에 여성/비혼/퀴어 관련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서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16.3%), 없다(24%), 보통이다(41.9%)로 응답했다. 추후에 응답자의 지역정보를 더 수집할 수 있으면 교차분석을 통해 어느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문화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없다(53.5%)와 전혀 없다(38.4%)로 응답했다. 이용 거부의 경험은 없지만 이용시 불편한 지점에 대한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소비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고민한 적이 있는가?”,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소비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콘텐츠 소지를 포기하거나 기록을 남기기 고민한 적이 있는가?(티켓, 멀티플렉스 포인트, 영수증 등)”의 응답비율을 보면 전혀 없다, 없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가 비등비등하다.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소비가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괴롭힘이나 불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이 필요하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콘텐츠가 있는가?”, “비혼지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콘텐츠가 있는가?”, “최근 접한 콘텐츠 중 중심인물 가운데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최근 접한 콘텐츠 중 서사의 배경이 나의 현실과 동질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는가?”, “콘텐츠에서 접한 실제인물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가?”, “콘텐츠에서 묘사한 가상인물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가?”의 질문들의 응답비율이 유사하다. 없다와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기존의 미디어에서 나와 유사한 서사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콘텐츠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희화화된 경험이 있는가? 매우 많다(27.9%), 많다(40.7%)로 미디어콘텐츠를 보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이성에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가 다수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매우 그렇다(89.5%)로 응답했고, “이성에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의 소비를 중단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40.7%), 많다(23.3%)로 성 평등한 미디어콘텐츠 제작과 확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미디어콘텐츠 제작과정에 여성/비혼/퀴어와 관련한 콘텐츠라는 이유로 제작이 반려된 적이 있는가? 질문에 해당없음을 제외하면 매우 많다(12%), 많다(12%)로 제작이 반려되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다.
-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제작을 망설인 적이 있는가?” 질문에 해당없음을 제외하면 많다(34%), 매우 많다(17.2%)로 제작을 망설였음을 알 수 있다. 망설인 이유를 현재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추후 그룹 인터뷰를 통해 교차분석을 통해 판단 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옷 가게에서 혼인여부에 따라 옷을 추천 받은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5.8%), 많다(5.8%)로 응답했다. 보통 아가씨가 입는 옷, 아가씨 같은 기혼여성에게 추천하는 미시들이 입는 옷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
- “옷 가게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입고 싶은 옷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9.3%), 많다(18.6%)로 응답자의 1/3정도가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옷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식당 이용 또는 배달음식 주문 시, 먹고 싶은 음식을 2인 이상부터 시킬 수 있어서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46.5%), 많다(26.7%)로 응답했다. 식생활 안에서도 1인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식당 또는 외부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타인이 괴롭히거나 위협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 많다(7%), 매우 많다(2.3%)로 응답자의 10%가 괴롭힘과 위협을 경험했음을 인지해야한다.
- “식당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의 음식이 다르게 나오는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매우 많다(12.8%), 많다(15.1%)로 응답자의 1/3 정도가 식당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먹는 행위를 할 때도 성별정체성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동일 가격의 소포장, 대포장 식재료 중에서 보관 및 음식물 쓰레기 걱정으로 소포장 식재료를 선택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38.4%), 많다(34.9%)로 응답했다. 사회적비용을 더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특정 성별정체성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추천 받은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많다(27.9%), 많다(27.9%),로 음식을 먹을 때도 성별정체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권

- “법적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질문에 전혀 아니다(18.6%), 아니다(18.6%), 보통이다(25.6%), 그렇다(20.9%), 매우 그렇다(16.3%)로 더 이상 가족이 완전한 안전함을 담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법적가족 내부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정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그렇다(34.9%), 그렇다(23.3%)가 가족에게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 “가족 내에서 안전권을 위해 제정된 법과 제도(아동학대 관련, 가정폭력 관련)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전혀 아니다(40.7%), 아니다(31.4%)로 과반이 안전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현재 도움이 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 “생활동반자, 동거인, 신뢰관계인, 주변인들과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질문에 매우 그렇다(32.6%), 그렇다(33.7%)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변 이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질문에 전혀 아니다(19.8%), 아니다(25.6%), 보통이다(32.6%)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이웃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밤에 거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매우 그렇다(55.8%), 그렇다(33.7%)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거의 대다수가 밤 거리를 다니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 “실제 혹은 타인이 인지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시선, 질문 포함)”질문에 그렇다(33.7%), 매우 그렇다(33.7%), “실제 혹은 타인이 인지한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시선, 질문 포함)”질문에 그렇다(32.6%), 매우 그렇다(24.4%)로 응답했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으로 인한 괴롭힘과 폭력이 존재함을 모두 인지해야 한다.
- “택시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질문에 그렇다(37.2%) 매우 그렇다(44.2%)로 응답했다. 이 결과와 함께 “택시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질문의 응답결과 그렇다(24.4%), 매우 그렇다(24.4%)를 함께 보면 실제 괴롭힘과 폭력의 경험이 있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 “길거리 혹은 공공장소에서 파트너와 애정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질문에 전혀 아니다(32.6%), 아니다(24.4%)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파트너와의 애정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간섭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29.1%), 없다(37.2%)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길거리 혹은 공공장소에서 파트너와 애정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어서 불필요한 간섭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호신)장비 등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그렇다(31.4%), 매우 그렇다(11.6%)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결해서 “자기방어 훈련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33.7%), 없다(29.1%)이고, “자기방어훈련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질문에 매우 그렇다(55.8%), 그렇다(29.1%)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기방어훈련 수업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울 ‘여성안심 홈’ 5종 키트 지원 등 국가 정책의 수혜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 전혀 없다(76.7%), 없다(14%)로 응답자들 대다수 수혜경험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서울 ‘여성안심 홈’ 5종 키트 지원 등 국가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전혀 아니다(18.6%), 아니다(23.3%), 보통이다(43%)순으로 응답하는 것이 당연했다.
- “보호시설 입소를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해서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보호시설 입소를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이용을 포기한 적 있는가?”, “보호시설에서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이용을 거부당한 적 있는가?”, “입소 및 이용을 위해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을 숨긴 적이 있는가?” 질문은 설문응답의 결과보다는 질문을 통해 참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었다.

03 설문 응답자 의견 정리

1)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추가 보완 사항

학습권 정보권

성적 지향으로 인한 재정적 불이익(ex: 월급 삭감 또는 미지급, 세금 부담)이나, 경제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험 등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아플 권리와 나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특정 성별에게 불합리한 업무를 배정 받은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 여성-커피타기 / 남성-짐 옮기기)

교육권(다수응답)

안전이별과 관련

가정폭력으로 법적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가족을 꾸리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 / 이성에 기반 신혼부부들에게만 전폭적인 주거권 보장이 불만스러움 / 생활을 함께하던 파트너와 주거를 분리해야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어려움

문화적 접근권에 대하여(멀티플렉스의 독점 배급 등) 다양성 영화 스크린 쿼터제도에 대한 질문

안전권에 대한 법적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프리랜서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권: 장기 근무 여부

공동거주 홈쉐어에대한 질문

반려동물 때문에 주거할 곳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2) 1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하는 부분

- 안전한 주거 보장 / 주거권 보장
- 1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주택청약제도 개선. 의료활동 시 보호자 정의 개편
- 1인주거권 관련 법 개정
- 노동 및 건강, 안전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 평등권
- 1인 가구는 거쳐 가는 가구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가구라고 인식해주길.
-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 지적 변화부터 이끌어 내도록 앞장서서 정당함을 널리 알리고 국민을 학습시켜 주길.
- 법을 소외받는 이 없도록 제정해야 할 것 같다.
- 1인 여성의 안전
- 안전
- 파트너십 제도/ 파트너 법
- 세금 제도 보완, 치안 및 성 관련 범죄 엄벌, 임대료 낮추기
-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감수성 조기교육,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저 기본소득 보장
- 기본소득

- 이성에 혼인주의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 혼인주의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주거최소기준 확실히, 생활동반자법, 안전 인식 확산
- 4인 가족 기준의 법에서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법으로!
- 누가 혼자 살아도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성별, 성적지향, 정체성 등 개인의 특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완화
- 청년주거
- 혈연 가족중심의 법제도 개편
- 제도와 법 정비 / 제도 개선
- 시민결합, 출생신고 시 혼외자 표기 폐지
- 생활 동반자 법과 1인 독단 결정을 사전에 내릴 수 있는 권리요.
- 다양한 지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지
-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 생활동반자법, 개인단위 복지시스템으로 전환
- 자유의 보장
- 안전한 주거환경
- 정책의 방향을 개인으로 돌려주세요.

- 일단 주거권 보장부터 직장에서 비혼이라고 은근히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 일인 가구 주거권 보장.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다양한 상품 및 제도 개발 및 우범 지역 등에 살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민영화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할 것 (현재는 케이티 텔레캅스에 지출 중), 다양한 생애주기를 가지는 1인 가구의 삶에 집중된 정책 개발 연구소 설립.
- 1인 기반 복지제도, 정책 수립
-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지 보급,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1인 가구로 살아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소수자 약자 인권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교육
- 안전 보장
- 가족 단위가 아닌 1인 단위의 행정체제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 개인정보노출로 인한 안전피해에 관한 섬세한 법적 규제
- 성평등 교육과 정책 마련
- 제도 마련(제도 자체, 지원), 인식변화 교육 및 홍보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조사하기.
- 보편적이고 편협한 생각, '가족중심' '이성애중심'등을 깰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등장 해야 한다. 특히 아직도, 공익광고는 부모와 아이의 화목한 모습, 이성애 중심적인 관계의 모습이 다수 출연하고 있다.
- 안전하게 서울에서 집 걱정 없는 살 권리보장

3)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

- 질문이 세세해서 좋았다.
- '모르겠습니' 라는 선택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기했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 고생했어요.
- 세세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되려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되어서 좋았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만 질문이 너무 깁니다. 진행상황 볼 수 있는 '바 옵션' 추가해주세요. ㄱㄱ 온라인 설문이 너무 길면 응답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 문항수는 많지만 보고서에 잘 활용되기를...
- 질문이 다양하지만 구체적이진 않은것 같아요.
- 쿼어 위주의 설문인 것 같습니다. 비혼 여성 관련은 따로 카테고리 화해야 할것 같아요.
- 비혼이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가는 것보다 비혼지향적이지만 단정 짓지 않는 질문이 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목적이 더 잘 읽히면 답변하기도 쉬울 것 같다
- 좋아요 / 너무 좋아요
- 양이 꽤 되네요 / 많아요 /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응답률 저조한 이유
- 성정체성에따라 굉장히 세분화된 질문들이어서 좋았습니다.
- 반려인/생활동반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하는지 헷갈리는 문항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연구를 응원합니다.

-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에 쉽게 떠올리지 못했던 폭력의 상황 등을 지적해주어 고맙습니다.
- 혈연과 비혈연인 파트너가 완전히 구분되어있어 선택할 때 망설여질 때가 있었다. 본인의 경우, 부모에게 결정권을 넘기고 싶지 않지만, 형제의 경우 고려 대상이기 때문.
- 설문 앞장에 용어 안내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설문하다가 내가 이해한 의미가 맞나 고민한 부분들이 종종 있네요.
- 설문조사를 하는 자체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좋았다.
- 자신의 생활환경을 돌아볼 수 있었다.
- 설문조사가 구체적이라 좋아요.

04. 혼자 정리하기

1. 현재의 한계와 이후의 확장

01 현재의 한계

🔍 1인의 범위 설정 및 다양한 정체성 포괄의 어려움

- 본 연구는,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나 가구의 형태와 관련 없이 자기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를 지향하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혼자', 즉 1인생활자(개인)를 정의하며, 지금까지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잘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던 '개인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드러내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서울시민, 청년, 여성, 귀어, 1인 가구, 비혼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을 통해, 지역, 지정성별 및 성별정체성, 연령, 성적지향, 가구, 혼인여부 등 다차원적으로 한 개인이 갖는 정체성이 모두 보장 받는 삶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하지만 개인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전부 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1인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은 상황, 시기 등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져 1인의 범위와 다양한 정체성을 1인으로 모두 명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각 권리별 지표 질문에 차별적 상황, 상태의 원인을 응답자 스스로 어떠한 정체성 때문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차별이 그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인지, 여성이기 때문인지, 퀴어이기 때문인지 등 어떤 특정 정체성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본인 또한 파악하기 힘들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한가지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가진 소수자성의 개수만큼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통합된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이 겪고 있는 차별 경험 또는 두려움의 유무를 묻고, 그 사람의 여러 정체성을 통해 원인의 가능성을 추측해 보는 방향으로의 질문 전환이 필요하다.
- 또한 개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1인 생활자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자신은 1인 생활자가 아니다”, “혼자 살고 있는 1인 생활자의 삶을 돌아보는 데에는 개인의 내적인 탐구만이 중요하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1인 생활자에 대해 이해하게끔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 1인 생활자의 생활에도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그 관계 또한 정상 가족과 같은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계들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1인 생활보장을 위한 권리 선정 및 지표화의 어려움

- 본 연구는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으로 1인 생활보장의 권리를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 것이 1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이 외에도 교육권, 종교권, 참여권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없이 많은 권리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에 있어 단순히 5가지 권리 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이후 연구를 통하여 더욱 다양한 경험을 가진 피연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보편적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로 설계의 어려움

- 본 연구에서 1인 생활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시, 피연구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기본 문항의 오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공론장을 통해 제작된 설문 문항의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설문 응답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문항에 대한 답변 예시로 여성/남성/인터섹스/젠더퀴어/트랜스젠더 여성^{MTF}/트랜스젠더 남성^{FTM}/기타를 제시하였다.

- 성별정체성은 여성/남성/젠더퀴어/기타로 응답항목을 설정하고, 인터섹스 여부와 트랜스젠더 여부는 별도의 질문으로 두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 인터섹스는 생물학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 정체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여성과 트랜스젠더 여성^{MTF}, 남성과 트랜스젠더 남성^{FTM}을 동일 선상으로 두었을 때, 여성과 트랜스젠더 여성^{MTF}, 남성과 트랜스젠더 남성^{FTM}이 다르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차별화를 두려면 시스젠더/트랜스젠더로 정리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후 연구에 반영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 본 연구에서 공론장을 통해 수정 제작된 설문조사에 총 86명이 응답하였다. 좀 더 구체적이며, 실효성이 높고,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차후 좀 더 구체적인 설문대상을 중심으로 큰 표본 집단을 구성하여 추가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또한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연령, 가구형태 등 본 설문조사에 제시된 기본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서울 내에서도 지역격차 발생), 재정 상태, 근로 계약 형태, 개인의 건강 상태, 성소수자의 경우 커밍아웃의 경험 유무와 범위 등 다양한 변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다양한 정체성에 각각 집중적으로 권리 보장 실태가 연구되어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02 이후의 확장

➡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 연구 후속 진행

- 기존 1인 생활보장 기본 권리인 5가지 권리(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와 함께 교육권을 추가로 설계하려고 한다.
- 기존 연구자를 포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견고하게 지표를 구축하고자 한다.

➡ 1인 생활보장 공론장 지속적인 개최

- 1인 생활보장 공론장을 권리별로 깊이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공론장을 개최하여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삶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 1인 생활보장 공론장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며 각 권리별로 보장 받아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삶을 통합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1인 생활보장 정책의제 발굴 및 제안

- 1인 생활보장을 위한 각 권리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한다.
- 1인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부터 조례제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를 마치며

01 연구에 대한 기대

- 처음에는 퀴어X여성X비혼X청년X1인 가구X서울시민 등의 소수성을 드러내어 1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정 정체성에 한정하지 않고 1인의 삶을 보장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다.
- 예를 들면, “주거 계약 시 청년 여성 1인 가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인을 대동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주거 계약 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인을 대동한 적이 있는가?”로 둔다면, 중년 여성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 된다.
- 시작은 교차성과 소수성으로 시작하였지만 보편적 권리로 1인 생활보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단초를 남기는 연구로 기록되길 바란다.

02 연구를 통한 기대

- 개인은 모두 혼자 돌보는 시간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는 시간을 중요시 하며 살아가야 한다. 개인의 삶을 보장하면서 개인이 준비된 시기에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 가족이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이지만 가족'만'이 사회 안전망의 최소단위이면 안 된다. 가족책임주의를 넘어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야한다. 개인이 자기돌봄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 희생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부분들을 책임 질 수 있는지 빈틈을 메워가야 한다.
- 이를 위해 '1인 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1인 생활을 불안하거나 미완인 상태로 여기거나 보지 않고, 개인이 선택한 삶의 한 형태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 또 1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관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개인이 자기 돌봄을 할 수 있고, 개인이 희생하지 않아도 공동체(가족, 일터 등)가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4인 가족 중심의 정책체계를 1인 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3. 연구진의 정리

방이슬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 수 있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생활보장지표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경험을 중심으로 듣고, 반영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에 아쉬움도 남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연구진과 공론장, 설문조사 참여자들 모두 확인하고 환기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사회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지만 원가족이 폭력과 학대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법률혼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여성, 쿼어, 여성이면서 쿼어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기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를 지향하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그래서 자기를 잃지 않고 서로에게 받침대가 되어주면서 보다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사람을 표준화하지 않는 정책과 담론에 힘이 실리기를 기대한다.

서정

연구에 참여해 본 경험은 전혀 없이, 그저 호기심과 의지만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다. 혈연/법적 가족 테두리 안에서만 대부분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권리들조차도 소수자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아우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나를 이 연구로 이끌었다.

연구는 기대보다 재밌었고, 한편으로 막막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흥미로웠다. 결핍된 권리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노동, 건강, 문화, 주거, 안전을 중심으로 삶의 전반을 짚어나갔다. 연구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설문문항을 구성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친 초안을 다듬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내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나름의 적합성을 갖춰나가기 위해 회의나 공론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권리지표들을 보완해나갔고, 그러면서 이 연구의 한계도 파악하게 되었다.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연구를 종료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만든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권리는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명제를 떠올려본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묻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불완전한 이 연구도 어느 누군가에게겐 작게나마 파장을 남겼으리라 기대해본다.

이운경

—— 나의 불안은 모두의 불안이었다. 나 혼자, 그리고 나의 파트너와 함께 갖지 못하고 있던 권리들은 나를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연구의 시작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내가 얻지 못한 권리는 많았고, 그것이 차별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이 화가 났다. 왜 나는 차별을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 '왜'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느꼈고, 그 시작은 차별이 차별임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최근 많은 연구들과 지표들이 1인 가구와 개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정책과 제도의 안내지표가 되어야 한다. 차별받지 않는 '모두'에 나를 포함한 모든 정체성의 사람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유나

— 한 사람 안에 교차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 실태에 대해서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애주기의 어느 지점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특히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은 드러나는 순간 혐오와 차별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 조사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연구의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 누구와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친밀성을 나누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포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결합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주로 이야기해왔는데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해소’를 위한 장치들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론장을 통해 깊이 새기게 되었다. 캐나다 가족법에서는 이성결혼, 동성결혼 등 가족 결합의 해소 시 주요 생계부양 배우자가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부양 배우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해소 시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으로 형성에 기여한 재산을 제대로 분할해주는 재산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해소의 윤리란 그런 것이 아닐까. 주거권과 노동권을 이야기할 때 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권리의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잘 헤쳐가는 사회가 되어야 혼자로서의 삶이 오롯해질 것이라 기대하며.

전정례

————— ‘인생의 한 시기에는 누구나 1인 가구일 수 있다.’ 이 전제 하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유럽의 한 국가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성년이 되어 원가족에서 독립한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소년도, 이혼/사별/별거로 생애 첫 1인 가구를 꾸리는 중장년도 자신의 불우함을 증명할 필요 없이 1인 주거 정책의 대상자가 된다. 정상생애주기모형을 따르는 한국의 주거 정책적 상황 속에서, 1인 가구 주거 정책을 청년에게 혼인 전 단계 임시 거주를 위한 1인용 원룸을 공급하는 정도로 설계하는 현실과 대조적이다.

—————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기존 사회 시스템의 구멍을 다양한 정체성과 가구형태 별로 최대한 많이 드러내야겠다는 접근법을 취했던 듯하다. 그러나 지표를 설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은 시기마다 다양한 정체성과 가구구성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하나의 통합된 나로서 경험한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연구를 마치며, 모든 형태의 삶을 포괄할 수 있는 1인 생활자 중심의 사회 구조를 상상해 본다.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정수미

연구를 기획하던 연초부터 우리 연구진들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거나 공감하는 사회적 배제 그리고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인 가구×여성×청년×비혼×퀴어×N개의 정체성을 가진 당사자인 우리가 경험하거나 공감하는 차별을 1인 가구 생활보장지표를 통해 담아내고자 했다. 흔히 무엇을 묻는지를 통해 질문자가 알고자 하는 바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설문으로 나타낸 지표는 주류사회가 그다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시대적 인구위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담론에서 비혼과 비출산을 지향하는 나의 삶은 출산율에는 하등 도움 되지 않는 불온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존재로 비취진다. 연구를 정리하며 나의 삶을 출산율과 출산력만으로 집계할 것이 아니라 혼자를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보장성을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차해영

연구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다. 이 연구를 마치고 연구 보고서까지 완성한다면 대학원에 가도 되겠다. 연구를 하는 내내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그랬다. 연구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를 이어가면 되고, 연구보고서를 완성하면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면 된다고. 그 이야기가 연구의 압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줬다. 어차피 계속 할 거라는 마음을 먹으니 편해졌다.

늘 하는 다짐하는 말이 있다. 성소수자이지만 성소수자로만은 살아가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은 잃지 않겠다고. 나에겐 다양한 정체성이 있고, 이 모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1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알았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계획하게 됐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어떤 관계들을 맺어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스스로가 '나'를 특정 정체성의 틀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라는 사람의 무한한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연구를 마치고, 이어나가려고 한다.

정답
08

부록

1인 생활보장 평가지표(안) (2019)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채용

- 이력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성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적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 면접 시 연애, 결혼, 출산, 육아계획 및 파트너 유무에 대해 질문을 받아본 적 있는가?
- 면접 시 특정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평가로 인해 취업 또는 계약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 있는가?
- 구직 시 공고와 다른 성비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가?

I 고용 (일터)

- 커밍아웃을 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 자신의 비밀을 말 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가?
- 외모/복장에 대해 특정성별 고정관념적인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일터에 맞춰 생리주기, 임신/출산, 임신중단 등을 조절하기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
- 자신의 특정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업무중단 및 변경, 고용해지 등)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급여, 승진, 근로조건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가?
- 혼인여부에 따라 급여, 승진, 근로조건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가?
- 고용주는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가?
- 특정 성별에 대한 외모/복장 규정이 있는가?
- 비혼인 비혈연 관계에 대한 가족수당, 경조휴가, 돌봄 휴가가 있는가?
- 생리, 트랜지션 등으로 인한 호르몬 치료/수술, HIV감염, 개인적인 질병, 장애 특성에 따른 상태급변 등의 사유로 휴가를 쓸 수 있는가?
- 이유를 말하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가?
- 일터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가?

|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계약/퇴거

-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혹은 가구형태(반려동물 포함)에 대한 차별적 질문이나 간섭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는가?
-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생활동반자와 함께 임대차 계약 시,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관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혹은 가구형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인을 대동한 적이 있는가?
- 월세 및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더 안전한 집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 파트너/생활동반자와 함께 주거지 물색 시, 가구형태에 적합한 구조의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 법/제도

-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해소 시, 임대보증금 또는 부동산이라는 재산형성 기여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성별 분리된 기숙사, 셰어하우스 등의 공동주거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입주신청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 청년주거지원제도(행복주택, 청년전세자금대출 등)가 파트너/생활동반자를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거나 1인 가구로 신청한 적이 있는가?

| 거주

- 성별 분리된 기숙사, 공동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혼인관계가 아닌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 또는 정체성에 따른 퇴거 압박 또는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는가?
- 혼인관계가 아닌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생활동반자와의 관계 또는 집에 방문하는 사람과 관계에 대해 이웃이 물어보는 것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 집 안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걱정이 될 때가 있는가?
- 집에서 혼자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택배를 받는 것이 걱정될 때가 있는가?
- 집 안에서 불법촬영장비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혼자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위장해 본 적이 있는가?
- 방법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있는가?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I 이사/집수리/리모델링

- 이사 또는 집수리 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가구형태를 숨긴 적 있는가?
 - 이사 또는 집수리 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가구형태로 인해 요청사항을 무시당한 적이 있는가?
 - 집주인이 사전 연락 및 동의 없이 집에 무단침입 한 적이 있는가?
-

|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의료

- 삽입/섹스, '이성교제' 결혼, 출산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가?
-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포기(미리 체념)한 적이 있는가?
- 의료인의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가?(탐수술, 산부인과 진료, 불임수술, 호르몬치료 등)
- 혼인 여부에 관한 질문을 진료와 무관하게 받은 적이 있는가?(건강검진, 문진, 진료 시)
-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국민건강보험에 비혼인/비혈연 관계의 생활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적 있는가?
-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지원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 있는가?(심리상담 등)
- 파트너 혹은 생활동반자가 나의 법적가족이 아니어서 간병이나 면회를 제한 받은 적이 있는가?
- 내가 파트너 혹은 생활동반자의 법적가족이 아니어서 간병이나 면회를 제한 받은 적이 있는가?
- 나의 법적가족이 일상적으로 나를 돌보는 사람과 일치하는가?

| 몸/운동

- 특정 정체성의 고정관념 없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운동종목의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성차별적인 피드백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혹은 불편했던 적이 있는가?)
- 임신/출산을 이유로 흡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 있는가?
- 다이어트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가?(미용 체중을 기준으로 체중 감량을 계획해 본 적 있는가?)
- 꾸밈노동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가?
- 다이어트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다이어트 약 부작용, 식이장애 등)
- 꾸밈노동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하이힐로 인한 발부상, 화장으로 인한 비립종 등)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정신/마음

-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 타인에게 자신의 특정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미움을 받거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가?
- 특정 정체성에 대한 편견 없이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가?
- 특정 정체성과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지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감과 안전함을 지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상담을 받았을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I 위생/질병

- 공용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느끼는가?
- 공용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을 망설이거나 미룬 적이 있는가?
- 공용화장실 이용 혹은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방광염 등)
- 공용화장실에서 세척이나 세탁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 생리대나 생리컵 사용을 포기(주저)한 적이 있는가?
- 공용샤워실/탈의실 사용이 어려워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결정권 위임

- 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의식불명 등) 의료결정권을 위임하고 싶은 사람이 법적 가족인가?
 -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파트너/생활동반자가 나에게 대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파트너/생활동반자가 나에게 대한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봐 염려한 적 있는가? 혹은 결정권 위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가?
 - 나의 장례 또는 유품 정리 등이 나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봐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사망 시 나의 시신을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사람이 인도받지 못할까봐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I 시설/플랫폼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불필요하게 요구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요구하여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자신의 특별 정체성으로 인해 커플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망설인 적이 있는가?
- 자신의 특별 정체성으로 인해 커플 커플 이벤트 참여에 제한을 당한 적이 있는가?
- 공공도서관에 여성/비혼/퀴어 관련 도서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경험이 있는가?
- 살고 있는 동네에 여성/비혼/퀴어 관련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서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있는가?
- 자신의 특별 정체성으로 인해 커플 인해 문화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가?

I 모임/행사

- 자신의 특정 정체성을 밝히고 활동하는 모임/동호회가 있는가?
- 모임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봐 자신의 특정 정체성을 숨긴 경험이 있는가?
- 모임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봐 가치관 및 지향을 숨긴 경험이 있는가?
-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모임 문화로 인해 참여에 곤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비혼/여성/퀴어 행사 참가로 인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한 적이 있는가?
- 비혼/여성/퀴어 행사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콘텐츠 향유(TV, 상업영화, 가요, 웹툰, 게임 등)

- 어떤 미디어 콘텐츠가 여성/비혼/퀴어에게 가장 친화적이라고 느끼는가?
-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소비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고민한 적이 있는가?
-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소비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콘텐츠 소지를 포기하거나 기록을 남기기를 고민한 적이 있는가? (티켓, 멀티플렉스, 포인트, 영수증 등) 자신의 특정 정체성과 관련하여 또는 가치관과 지향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콘텐츠가 있는가?
- 최근 접한 콘텐츠 중 중심인물 가운데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 최근 접한 콘텐츠 중 서사의 배경이 나의 현실과 동질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는가?
- 콘텐츠에서 접한 실제인물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가?
- 콘텐츠에서 묘사한 가상인물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가?
- 콘텐츠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희화화된 경험이 있는가?
-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가 다수라고 생각하는가?
-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문화콘텐츠의 소비를 중단한 적이 있는가?

| 콘텐츠 생산(기획 및 제작)

- 미디어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여성/비혼/퀴어와 관련된 콘텐츠라는 이유로 제작이 반려된 적 있는가?
-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여성/비혼/퀴어 콘텐츠 제작을 망설인 적이 있는가?
- 성차별적인 피드백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I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

I 먹거리/패션 의류

- 옷가게에서 혼인여부에 따라 옷을 추천 받은 경험이 있는가?
 - 옷가게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입고 싶은 옷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 식당 이용 또는 배달음식 주문 시, 먹고 싶은 음식을 2인 이상부터 시킬 수 있어서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 식당 또는 외부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타인이 괴롭히거나 위협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
 - 식당에서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의 음식이 다르게 나오는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동일 가격의 소포장, 대포장 식재료 중에서 보관 및 음식물 쓰레기 걱정으로 소포장 식재료를 선택한 경험이 있는가?
 - 특정 성별정체성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추천 받은 경험이 있는가?
-

Ⅰ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Ⅰ 집/가족

- 법적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생활동반자, 동거인, 신뢰관계인, 주변인들과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법적가족 내부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주변 이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Ⅰ 공공시설

- 밤에 거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실제 혹은 타인이 인지한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시선, 질문 포함)
- 택시 이용 시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대중교통 이용 시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공공기관에서 '자기방어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파트너와 애정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 파트너와 애정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간섭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호신)장비 등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 페스티벌이나 공연장 등에서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병원 이용 시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불법촬영이나 갑작스러운 물리적인 위해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학교생활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Ⅰ 상황

- 설문문항(제도, 관계, 문화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세부 설문문항 설계)

Ⅰ 보호시설

-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해서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이용을 포기한 적 있는가?
-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가?
- 입소 및 이용을 위해 자신의 특정 정체성을 숨긴 적이 있는가?
- 성별 분리된 기숙사, 공동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가?

Ⅰ 일상/여가

- 여행지에서 불법촬영 장비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숙박시설 이용 시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차별적 질문, 대우를 받은 적 있는가?
- 혐오범죄 뉴스를 보고 불안감, 공포를 느낀 적이 있는가?
- 불안감,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아 뉴스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적이 있는가?
- 인터넷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위협 받은 경험이 있는가?
- 인터넷상의 공간에서 본인의 사진, 영상 유포에 대한 공포를 느낀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의 특정 정체성으로 인해 안전을 목적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한 적 있는가?

Ⅰ 위급상황

- 위급상황에서 법적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끼는가?
- 위급상황에서 급히 찾아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친구가 있는가?
- 재난재해 시 혈연/혼인관계가 아니어서 파트너/생활동반자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국가의 안전체계(공권력, 경찰, 소방 등)에 도움을 청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활력향연 2019

...
활력향연-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일 | 2019년 10월 31일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

주소 |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